

광 고

원양산업

제 1150 호
(2022년 10월 15일 발간)

창간 :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 (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2022년도 수산분야 주요 CEO 초청 세미나 개최 / 4
- 투발루 어촌뉴딜 성공을 위해 뜻 모았다 / 5
- '원양축제', 부산 영도서 3년 만에 개최 / 6
- 2022년 제3차 외국인선원 노사정합동점검 실시 / 7
- 순직선원 위패 봉안·합동위령제 거행...위패 31위 추가 / 8
- 참치선망 입어협상 연이어 추진 / 8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22년 9월 보고 내용 / 9
- 요리 만들기 (공치파이) / 13



해외수산정보

■ 국제유가 동향

- MGO 싱가포르 벙커 가격 전월 대비 2% 상승 / 14

■ 참치어업 동향

- 방콕 가다랑어 가격 하방 압력 / 15
- 파푸아뉴기니 항구, 8월 참치 전채량 급감 / 15
- 8월 중서부 태평양 어획량 추가 감소 / 16
- 선전시, 참치 양륙 시 톤당 1,500 위안 보조 / 16
- 미국-태평양 파트너십 관계 선언 합의 / 17
- 라니냐 현상 올해 말까지 지속 예상 / 17
- PNG, 수산물 지속가능성 운동 선두주자 목표 / 18
- 日 8월 냉동 참치 원어 수입 통계 발표 / 19
- 日 8월 냉동 농다랑어 kg당 1,074 엔 / 20
- 만타 가다랑어 가격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 유지 / 20
- 상반기 태국 참치캔 美 수출 감소 / 21
- 미국, 참치 파우치 수요 증가 / 21
- 오만 어업회사, 에콰도르 어업회사와 어업 계약 / 22
- 에콰도르 참치어선 연료 지원 중단 논의 / 22
- EU 상반기 참치캔 수입량 8% 증가 / 23
- 관광 회복, 스페인·이탈리아 참치캔 수입량 급증 / 23
- EU, WCPFC 조업선 관련 새로운 어업 규정 승인 / 24
- EP, 인도양 참치 선단에 대한 새로운 규정 동의 / 24
- EU, ICCAT 어획 전략 채택 지지 / 25
- EU-마다가스카르 어업 협정 체결 눈앞 / 25
- 중국 포함 선망어업 3개사, MSC 범위 확장 추진 / 26
- ANABAC, 인도양 가다랑어 어업 MSC 인증 추진 / 26

Contents

- 방글라데시, 참치 어업 외국인 투자자 유치 고심 / 27
- 스페인 황다랑어 가격, 기록적 수준 유지 / 27
- Calvo, 2025년 지속가능 계획 성과 평가 / 28
- Princes, 참치캔 대체 라인 출시 / 28
- 참치 짚은 부위 섭취, 장수에 도움 / 29
-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미국 포케 시장 / 29

■ 오징어어업 동향

- 포클랜드 Fortuna, 오징어 트롤선 신조 발표 / 30
- 日 “해외 오징어 원료 수급 올해도 어려워” / 30

■ 명태어업 동향

- 러시아, 새로운 수산 전략 채택 / 31
- FSA, 동감차가·북쿠릴 명태어업 MSC 인증 획득 / 31
- 러시아 3분기 어획량 약 370만톤 / 32
- 中 명태 산업 회복세 / 32
- 러시아, 수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강화 / 33
- 美 알래스카 동베링해 명태 자원 회복 / 33
- 러시아 40주차 명태, 청어 가격 하락 / 34
- 노르웨이, 러시아 어선 정박 부분적 금지 / 34

■ 꽁치어업 동향

- 日 꽁치, 소형화로 인해 어체 클수록 가격 더 상승 / 35
- 日 꽁치 봉수망어업, 태풍 이후 재개 / 35
- 日 꽁치 관계자 “자원 미래 위한 조치 필요” / 36
- 러시아 꽁치 어업 여전히 미개시 / 36

■ 각국 수산 동향

- 중국발-서유럽행 컨테이너 운임, 팬데믹 이전 수준 / 37
- 무디스 “해운업 수익성 전망 부정적” 예측 / 37
- 노르웨이 1~9월 수출 1,000억 달러 돌파 / 38
- 노르웨이 연어·송어 대기업 40% 세금 내야할 수도 / 38
- EU, 최대 수심 400m까지 트롤 어업 허용 / 39
- 나미비아 민대구 TAC 15만 4,000톤 설정 / 39
- ECA, EU의 더 강력한 IUU 어업 조치 촉구 / 40
- Aker, 크릴 어획량 23% 증가 / 40
- 美 노동부 보고서, 대만·태국 노동 문제 등재 / 41
- Ocean Brands, 정어리·고등어 제품 출시 / 41
- MSC, 클라이머테리언 증가 / 42
- 18개 보험사, 새 IUU 추적 도구 사용 서약 / 42
- 日 2022년도 외식시장 규모 약 29조 엔 예측 / 43
- 日 2022년 중식(中食) 시장 규모 12조 엔 전망 / 43
- MSC “새 ICES 권고안, 북동대서양 부어류 남획 우려” / 44
- 노르웨이, 북해 고등어 어획 호조 / 44

■ 쉬어가는 난 (시)

- 파란 돛 〈장석남〉 / 45

■ 국내 수산 정보

- 9월 오징어 국내 동향 / 46
- 9월 명태 국내 동향 / 48
- 물가 안정을 위한 수산물 할인행사 가을에도 계속 / 50
- 해수부, ‘어업기자재관리과’ 신설 / 50

2022년도 수산분야 주요 CEO 초청 세미나 개최

인력 부족 문제 집중 논의



우리 협회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물무역협회가 지난 9월 30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업무협약식과 수산 CEO 초청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 원양산업과 이규선 과장, 수산정책과 황준성 과장, 수출가공진흥과 김성희 과장, 우리 협회 윤명길 회장을 비롯한 동원산업, 동원수산, 동원해사랑, 사조산업, 신라교역, 예람교역 등 원양업계 CEO, 한국수산물무역협회 배기일 회장을 비롯한 수산무역업계 CEO,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 조정희 경영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세 기관의 업무협약식을 시작으로 KMI 마창모 수산연구본부장의 '글로벌 환경변화와 수산업 영향' 주제 발표, 그리고 수산분야 CEO 토론 순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김종덕 원장 주재로 진행된 수산 CEO 토론에서는 인력 부족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시대변화를 고려한 원양어선원 필수 승선 기준 개정과 수출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공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최고품질의 수산식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더불어 안전한 원물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환경관리에 좀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생산, 유통, 가공, 수출과정의 선순환 생태계 마련의 중요성도 이야기되었다.

김종덕 KMI 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원양, 수출기업 외에도 양식산업, 연근해어업 등 다양한 분야 수산 CEO를 초청하는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수산분야 현안 논의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투발루 어촌뉴딜 성공을 위해 뜻 모았다

해양수산부,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농어촌공사, 업무협약 체결

해양수산부, 우리 협회,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9월 30일 우리 협회 대회의실에서 ‘투발루 어촌뉴딜 공적원조(ODA)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해양수산부 최용석 수산정책관, 이규선 원양산업과 과장, 우리 협회 윤명길 회장, 한국농어촌공사 송성일 이사를 비롯해 동원산업 이명우 대표이사, 사조산업 김치곤 대표이사, 신라교역 김호운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해양수산부는 그 동안 우리 원양어업의 주요 어장인, 투발루, 키리바시 등 남태평양 도서국에 제빙기나 발전기 등 물자를 공여하는 공적원조(ODA)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물자 공여만으로는 해당 국가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나라 외의 조업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대규모 공적원조(ODA)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투발루와 어촌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촌뉴딜 공적원조(ODA)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였고, 이번에 국내 지원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투발루 어촌뉴딜 ODA 사업에 대해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본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의 수행기관으로서 본 사업의 착수를 위한 지원을 담당할 예정이고, 우리 협회는 소속 선사들의 어획물 운반선을 활용해 건설 공사 관련 물품의 이동에 대해 협조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경규 수산정책실장이 협약식 이후 협



회를 방문해 협약식에 참석한 우리 업계 대표들과 면담 자리를 가졌다.

해양수산부 최용석 수산정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원양어업의 조업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투발루 어촌뉴딜 공적원조(ODA) 사업은 투발루에는 활기찬 어촌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우리 원양업계는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원양축제’, 부산 영도서 3년 만에 개최 8일 부산해사고서 참치 라이브쇼, 체육행사 등 마련



국가식량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원양 어업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노·사간 협력 분위기를 도모하는 자리인 ‘원양축제’가 지난 10월 8일 오전 10시 부산 영도 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 실내체육관 및 운동장에서 3년 만에 열렸다.

원양축제는 부산 시민에게 원양산 수산물을 홍보하고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발상지이자 전진기지인 부산 시민의 인식과 부산지역의 위상을 제고하는 원양 관련 최대 규모의 축제다.

이날 축제에는 원양어선원 가족들뿐만 아니라 원양 산업 관련 종사자, 은퇴 어선원, 수산계고교생, 원양 가족과 그 외 모든 부산시민 등 참여해 백일장, 사생 대회 등의 문화행사와 족구, 팔씨름 등의 체육행사가 함께 펼쳐졌다. 또한 대형 참치를 해체하는 참치 라이브쇼와 가족건강 무료검진 부스, 캐리커처 그리기, 주

부문화 체험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도 마련됐다. 주요 내빈으로는 우리 협회 윤명길 회장, 전국 원양산업노동조합 박진동 위원장을 비롯해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 김기재 영도구 구청장,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 국장 등이 참석했다.

‘자랑스러운 원양어업인’으로 선정된 장기근속 선원 8명에게는 해양수산부장관상, 부산광역시시장상, 부산해양경찰서장상, 한국노총위원장상 등을 포상했다.

원양축제는 전국원양산업노조와 한국원양산업협회가 주최하고, 해수부·부산시·한국노총 등 노·사·정 13개 관련 단체가 후원한다.

우리 협회 윤명길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 축제의 장이 우리 원양어업 종사자 및 가족여러분 모두가 용기를 갖고 희망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2년 제3차 외국인선원 노사정합동점검 실시

승선자 송출비용 부담 여부, 임금 보장 여부 등 조사



「2022년도 제3차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이행 노사정합동점검」이 지난 10월 12일 우리 협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노사정 합동점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이 7회차이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박승희 사무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운숙 국장,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 김영수 본부장, 우리 협회 이형균 경영지원본부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들은 우리 원양선사 30개사, 156척에 승선한 3,075명의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송출비용 부담 여부, △임금보장 여부, △하선 희망자 수요조사 실시 및 조치 여부, △휴식시간 부여 여부, △인권 고충상담 실시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선사가 개선안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제4차 합동점검은 12월 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순직선원 위패 봉안·합동위령제 거행...위패 31위 추가 총 9314위로 늘어

지난 10월 4일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태종대공원 입구 순직선원위령탑에서 ‘제44회 순직선원 위패 봉안 및 합동위령제’가 거행되었다. 올해 위패 31위가 추가로 봉안되면서 순직선원위령탑에는 총 9314위의 위패가 모셔지게 됐다.

정태순 한국해운협회 회장을 대신해 제주를 맡은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추도사를 통해 “고인들께서 바다에 남기신 거룩한 도전과 희생의 발자취는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해양강국으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됐다”라며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수많은 위기를 극복했던 저력으로 고인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강건한 해양수산

대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위령제에는 부산 중구·영도구가 지역구인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해 함께 순직선원의 넋을 위로했고, 선원 유가족 및 선원 관련 8개 단체 대표자 등이 참석했다. 우리 협회에서는 이형균 본부장이 참석했다.

매년 음력 9월 9일 중양절에 열리는 순직선원위령제는 선원노련과 한국해운협회·수협중앙회·한국해운조합·한국원양산업협회·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한국해기사협회·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 7개 선원관련단체가 주관하며, 해양수산부·부산광역시·부산항만공사가 후원한다.

참치선망 입어협상 연이어 추진

마이크로네시아, 파푸아뉴기니, 키리바시 등과

우리나라 참치선망 업계와 태평양도서국과의 입어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2023 어기 한-마이크로네시아(FSM) 참치선망 입어협상’이 지난 9월 27~28일 화상회의로, ‘2023 어기 한-파푸아뉴기니(PNG) 합작선사 참치선망 입어협상’이 지난 10월 5일 화상회의로 열렸다.

두 입어협상 회의에서는 2023 어기 조업일수, 가격 등 입어조건 갱신이 논의되었다. 추후 양측은 재협의를 통해 최종 약정 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23 어기 한-키리바시 참치선망 입어협상’이 10월 14~1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10월 9~16일 세계참치선망선주기구(WTPO) 회의와 INFOFISH World Tuna Conference 2022가 개최되어 이와 연계해 사전 교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입어협상에서는 2022년 잔여 어기 및 2023년 어기 입어조건·허가장 갱신 등이 다뤄진다.

솔로몬, 나우루와의 협상은 10월말 추진될 예정이다.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9월)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관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다카르	668€/MT	경유	'22.9.26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파운드, lbs)	가격(유로/톤)
가다랑어	3.4kg	1,677
	1.8kg	1,628
	1.5kg	1,480
황다랑어	10kg	1,825
	3.4kg	1,726
	1.8kg	1,628
눈다랑어	10kg	1,677
	3.4kg	1,677
	1.8kg	1,628

- 예년의 어획 비수기로 진입하고 있는 투발루 어장의 어획도 수온대가 조금 낮게 형성되는 와중에도 피지수역과 비슷한 활황을 보이고 있음.

나. 정부 재정 현황

- 피지 국세청은 현재 국세의 징수 관련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작년 동월대비 전월에 이어 계속 세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함.
- 앞으로 관광, 수입, 지출 및 소비 증가를 예상하여 국내 경기의 활성화가 계속될것으로 전망함.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기타
날개다랑어	10kg 상	3,100	로인가공용(PAFCO)

라.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TOTAL	1,420달러/MT	MGO	'22.9.9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관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어업 동향

- 원양 연승독항선 및 소형기지선 현재 피지수역 및 근접 수역에서 활황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 1~1.5톤/회의 어획을 고르게 올리고 있음.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관



오시영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어업 동향

- 금월 사모아 및 연근해 어장인 쿡아일랜드 어장에서의 평균 어획량은 날개다랑어 0.5~1톤,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 0.2~0.4톤임.



나. 코로나19 관련 사항

- 코로나19 양성자는 10일 동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아메리칸사모아 입국 시 10일 전 TALOFAPASS에 선등록해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며, 코로나19 검사는 필요 없음.

다. 아메리칸사모아 대표단, 제주 방문

- 9월 26일 Lemanu P.S. Mauga 아메리칸사모아 주지사 및 주정부 대표단이 제주도의 중요한 기반 시설 및 산업현장 순방을 위해 한국 입국함.
- Lemanu 주지사 및 대표단은 29일 오영훈 제주도지사 면담과 함께 환경자원순환센터, 하수처리장 시설 방문 후 30일 월드컵경기장 융합충전소, CFI 미래에너지관, 정수장 등을 방문함.
- Lemanu 주지사 및 대표단은 또한 한국엔지니어링본부(서울) 상하수처리장 견학 후 동원산업 김재철 회장 주최 간담회 및 오찬 참석. 스타키스트 사모아 하인주 부장 또한 참석함.

라.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기타
황다랑어	라운드	1,550	
눈다랑어	라운드	1,350	
가다랑어	라운드	1,350	

마.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 격	조사일
Clipper, Oil	\$4.22(gallon)	'22.10.10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관

가. 뉴질랜드 오렌지라피 MSC 인증 품목에 다시 포함

- 개체수 고갈로 인해 MSC 인증이 박탈되었던 오렌지라피가 재인증을 받게 되었음.
- 오렌지라피 시장은 연 3억 NZD 가량이며, 세계 물량의 80%를 차지함. 어획된 80%의 물량은 미국, 14%는 호주로 수출됨.
- 이전에는 쿼터가 총 개체수의 20% 정도였지만 이제는 5%로 설정. 오렌지라피 보존과 함께 뉴질랜드 수산업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Z	1,264달러/MT	MGO	'22.10.4

다. 어류가격 동향

어종명	사이즈	가격(달러/톤) /FOB 기준	기타 (회사명)
HOKI	2L	2,850	Sea Jho Co LTD.
	L	2,850	
	M	2,450	
	S	2,250	
LING	3L	3,500	
	2L	3,200	
	L	3,000	
	M	2,800	
	S	-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관



이윤홍
명예해양수산관

가. 어민들은 프리믹스 “Kalabule(판매 착취)” 막기 위해 자동화 수락

- 연안 어촌 공동체를 따라 프리믹스 연료를 판매하는데 있어 착취와 사재기는 어민들에 곤경을 안겨주고 어민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효과를 무효화하고 있다.
- 프리믹스 1갤런은 10.40GH에 판매 되어야 하나, 현재 해안에서 어민들에게 50GH에 팔리고 있다.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러 차례 프리믹스 판매 자동화를 거부한 어민들은 정부의 프리믹스 판매 자동화에 동조하여야 했다.
- 자동화가 진행되면 어부들은 휘발유 판매 방식과 마찬가지로 공인 주유소에서 프리믹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kg)	가격(US\$)/톤	기타
황다랑어	10kg 상	2,300	
	10kg 하	1,840	
가다랑어	3.4kg 상	1,500	
	1.8kg 상	1,450	
	1.5kg 상	1,300	
	1.5kg 하	1,150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기타
양상급유	1,205달러/kl	MGO	'22.9.30	

이재원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관



이재원
명예해양수산관

가. 정부, 전 해양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

- 보호구역 확장의 목적은 어족 자원 증가 및 탄소 흡수에 있음.
- 해양수산부 장관 Sakti Wahyu Trenggono씨는 청색경제(Blue Economy)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해양산업의 회복과 해양수산부문이 인도네시아 경제의 활력이 되어야 한다며 해양자원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용한 청색경제를 실현할 전략 중 한 가지는 보호구역을 30%까지 확장하여 어족자원증가와 탄소흡수기능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음.
- 그리하여 다음세대에 큰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고 8월 2일 밝힘.
- 정부는 2030년까지 3,250만 헥타르의 해역을 보호수역으로 지정한다는 목표, 현재 인도네시아 보호해역 넓이는 2,840만 헥타르임.
- 해수부 해양생물 다양성 및 보존국장 Firdaus Agung씨에 의하면, 보호구역을 30%까지 확장하는 것을 2045년까지 완수하기를 기대한다고 함.
- 현재 인도네시아 영해면적은 3억 2,700만 헥타르에 달함.

나. 인도네시아 국내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 2022년 6월 중순까지 해수부의 단속기관에 나포된 불법조업 어선이 79척이며, 68척이 인도네시아 국내 어선, 11척이 외국 어선으로 말레이시아 국적선 9척, 필리핀 국적선 2척임.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물



정승화
명예해양수산물

가. 싱가포르 수산엑스포 참가

- 코로나19로 2020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수산엑스포(싱가포르 개최)에 참가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아직 참가 및 부스 개설은 미미한 것으로 전해짐.
- PNG에서는 Mud Crab 수출 진흥을 위한 동종업계 참여가 두드러졌으며, 수산부 장관 및 수산청장 등 관계부처 직원과 기타 업계도 참여함.

나. 중단되었던 연안 어업 활동 재개

- 2022년 11월 수산청은 그동안 금어기를 실시하였던 Mud-Crab의 어획을 허가한바, 코로나 이후로 침체되었던 연안어로 활동의 개시를 알림.
- 하지만, 견해삼은 2023년에 다시 조업 실시를 할 예정임.

다. 국제 시장의 변동

- 미 달러 강세로 인한 환율 변동이 수입 국가들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아시아 시장에서 경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로 인하여 수출 물품의 가격인하 및 주문 수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 특히, 년초(4월)부터 수입상이 이례적으로 수입 물량의 감소를 통보하는 등의 행보를 보임.

라. 호주의 대중 견제 및 중국의 진출

- 호주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현재 중국인들의 PNG 연안어업 진입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보임. 이 점은 지난번 보고한바 있으나, 현재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에 호주와 가장 가까운 지역인 Daru, Western 주에는 호주 대사관 직원의 파견 및 현지 업체에 대한 지원 등을 고려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
- 호주 입장에선 타국 정책에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것이 어려우나 방치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에 해결책 강구에 고심 중.
-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PNG당국의 입장은 국가 수입 증대를 위해 해양 자원을 라이선스 판매 형태로 외국어선의 진입을 허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중국계 상당수가 현재 PNG 당국의 계획에 따른 중국 어선 진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됨. 특히 현 수산부 장관이 중국계라는 점과 화교와의 친분을 고려하면 이러한 움직임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됨.
- PNG 입장에선 실질적 도움이 적은 호주보다는 지원에 적극적인 중국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인접국인 솔로몬의 경우에는 중국의 위상이 급상하는 모습까지 관측됨.
-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 본토가 정치, 경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이고 미중 갈등 해소는 요원하기 때문에, PNG-중국 간 관계가 빠르게 발전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마. 어류가격 동향

어종	단가	규격	기타
냉동자연산새우 (무두대하)	USD 10.00/kg	26~30/lb	
	USD 9.00/kg	31~40/lb	

바.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 격	유종	조사일
TWL Logistics Ltd	1.0217달러/리터	Diesel	'22.10.8

〈계재순서 : 명예해양수산물 성명 가나다순〉



공치파이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 공치캔 2개, 사워크림 300g, 마요네즈 200g, 밀가루 6큰술, 계란 3개, 식소다 0.5t, 소금 1작은술, 공치통조림 2개, 감자 2개, 양파 1개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계란, 사워크림, 마요네즈를 넣고 섞고, 식소다와 밀가루를 넣어 반죽을 준비한다.
- ② 채칼을 이용해 감자를 가늘게 채 썰고, 양파는 칼로 채 썬다.
- ③ 포크를 사용해 공치를 으갠다.
- ④ 오븐팬에 2의 채썬 양파-> 2의 채썬 감자-> 3의 으갠 공치 순으로 두 번 반복하여 층층이 쌓은 후 1의 반죽을 부어준다.
- ⑤ 180도로 예열한 오븐에 4의 팬을 넣고 35~40분 구워준다.
- ⑥ 5의 파이가 갈색이 되면 꺼내 타임을 올려 완성한다.



MGO 싱가포르 벙커 가격 전월 대비 2% 상승 월 평균으로 보면 6% 상승

최근 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산유국의 감산 소식으로 급등했으나 경기침체 우려가 강화되며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13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92.51 달러, WTI 가격은 87.31 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93.17 달러를 기록했다.

10월 10일 기준 싱가포르 선박용 경유(MGO) 벙커 가격은 톤당 1,046.11 달러로 9월 9일(1,025 달러) 대비 2% 상승했다.

10월 평균(10.1~10.10) 가격은 1,016 달러로 전월 평균(9.1~30) 962 달러 대비 6% 상승했다. 전년 10월(10.1~10.31) 평균과 비교해서는 44%, 전전년 10월과 비교해서는 199%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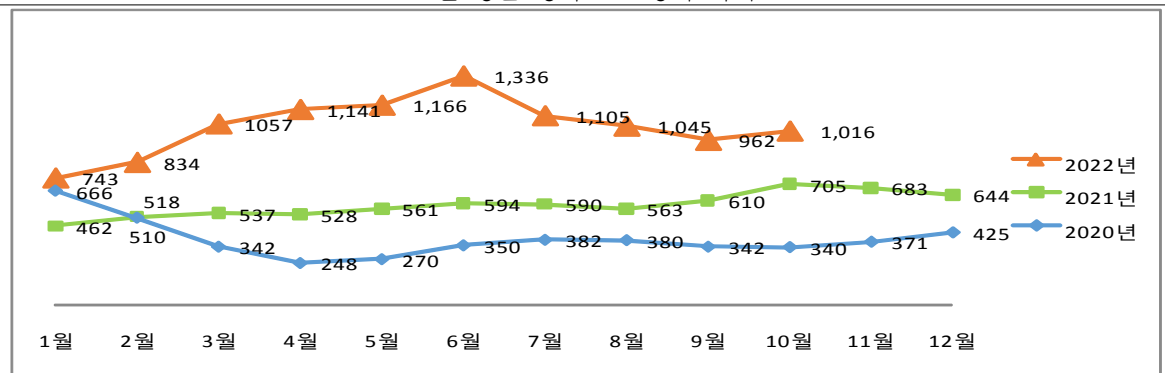
2022년 평균(1.1~10.10) 가격은 1,046.11 달러로

전년(1.1~12.31) 평균 대비 79% 상승, 전전년 평균 대비 171%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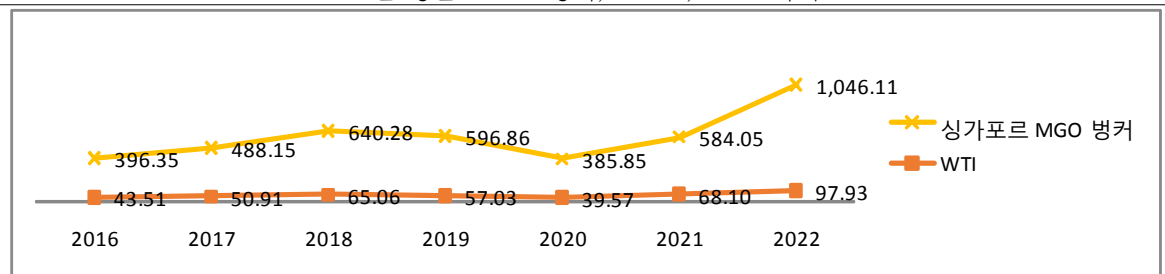
OPEC+ 감산 결정 직후 외국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올 연말까지 유가가 오를 것이라 전망이 담긴 보고서를 냈다. 올해 4분기 영국 브렌트유 가격 전망치를 기존 배럴당 100달러에서 10달러 올린 110달러로 제시했다. 내년 1분기엔 그보다 더 오른 배럴당 최대 115달러를 도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해당 보고서에선 "원유 재고와 예비용량이 전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단기적으로 OPEC+의 감산 조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재고가 빠지고 수요가 많아지는 내년 말까지 감산 기조를 유지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월 평균 싱가포르 벙커 가격



연 평균 MGO 벙커, Brent, WTI 가격





방콕 가다랑어 가격 하방 압력

공급 증가로 가공업자 압박 커져

FAD 조업 금지가 10월 1일 종료된 후 방콕 가공업자들은 FAD 조업 참치의 대량 공급을 기대하고 있어 가다랑어 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 가공업자들은 이미 스쿨 조업 참치 어획량이 증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주 가다랑어(1.8kg 이상) 가격은 품질, 수량, 운송 시기에 따라 1,650~1,750 달러로 폭 넓게 거래되었다. 현물 가격은 1,700 달러로 지난번 보고된 가격보다 5.5% 하락했다.

몰디브의 어획량이 최고치에 달한다는 소식이 방콕

가공업자들의 귀에 들렸으며, 해당 어획물은 향후 몇 주 내 방콕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가다랑어 가격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할 것이다. 몰디브 참치 채낚기선에서 어획된 가다랑어는 방콕에서 약 1,800 달러에 판매가 제시되고 있지만 이 수준에서 구매할 구매자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태국 수입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참치 채낚기 어획물에 대한 프리미엄이 크게 하락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0월 7일자



파푸아뉴기니 항구, 8월 참치 전재량 급감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시 증가

최근 나우루협정당사국(PNA) 국가 항구들의 보고에 따르면, 8월 PNA 항구 참치 전재량은 지난달 대비 17% 감소한 5만 4,390톤이다. 일부 항구의 전재량이 보고되지 않아 총 전재량은 더 많다고 봐야한다. FAD 조업 금지 조치의 영향으로 이례적인 감소는 아니다.

파푸아뉴기니(PNG) 항구에서의 전재량은 2만

3,000톤으로 전체 전재량의 42%를 차지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1만 4,000톤 가까이 감소했다.

마이크로네시아와 키리바시 항구 전재량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키리바시 전재량은 크게 증가했다.

전재된 대부분의 참치는 방콕으로 향하고 있으며 지금부터 10월 중순 사이에 도착할 것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9월 29일자



8월 중서부 태평양 어획량 추가 감소

PNG 어획량 급감

중서부태평양 선망선단 8월 어획량은 어업 노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대비 13% 감소한 7만 6,797톤이었다. FAD 조업 금지의 영향이지만 2019~2021년 8월 평균과 대비해도 낮은 수치이다.

어업 노력은 지난 몇 달과 마찬가지로 중서부태평양 서부 수역에 집중됐다. 마이크로네시아와 파푸아뉴기니(PNG) 수역에서 총 조업 노력의 66%가 발생했다. 전체(공해, PNA EEZ) 어업 노력은 지난달 보다 6% 증가했다.

일일 평균 어획량은 토켈라우 수역에서 52톤으로 가장 높았다. 토켈라우 수역에서의 어획 노력은 전체로 보면 무시해도 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가장 높은 어획 노력을 보인 마이크로네시아 수역에서의 일

일 평균 어획량은 24톤으로 나우루, 마셜제도 보다 낮았다. PNG 수역에서의 일일 평균 어획량은 18톤으로 근 1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키리바시 수역 일일 평균 어획량은 증가했다.

가다랑어 일일 평균 어획량은 20톤으로 과거 8월과 비교했을 때 2021년 15톤보다는 증가했지만 2019~2020년 보다는 낮았다. FAD 조업 시와 비교하면 약 10톤 정도 적은 수치이다.

대형 황다랑어 일일 평균 어획량은 지난달 대비 약 0.8톤 감소했고, 황다랑어 치어 일일 평균 어획량은 1톤 미만으로 떨어졌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9월 28일자

선전시, 참치 양륙 시 톤당 1,500 위안 보조 신조, 원양어선 현대화, 국제 협약 이행 개선 등에도 지원

선전시는 중국 참치 어선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에는 선전에 하역하는 참치의 운송비용을 경감해주기 위한 보조금이 포함되었다. 항공으로 운송되는 냉장 참치 1톤에 대해 회사는 1만 7,600 위안(2,454 달러)을 받을 수 있다. 해상으로 운송되는 초저온 및 냉동 참치의 경우 톤당 1,500 위안(209 달러)을 받을 수 있다.

선전에 기반을 둔 회사가 선망선 및 연승선을 구매 또는 건조할 시 투자액의 30% 이하로 1회 보조금 지급이 권장된다. 국내외 초저온 냉동창고 건립

과 어업시설 투자에도 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국제참치무역센터에 가입하고 수산물 생산 및 양식업을 선전시로 리턴하는 기업에게 자금이 배정된다.

선전시는 원양어업 활성화를 위해 원양어선 현대화, 선전시 내 원양업체 설립 장려, 어획물 리턴 촉진 등에 재정을 분할 배정했다.

해외수산자원의 개발 및 이용, 국제 협약 이행 개선 등에도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9월 27일자



미국-태평양 파트너십 관계 선언 합의

미국, 태평양 도서국에 8억 1,000만 달러 지원 약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태평양 도서국에 8억 1,000만 달러(약 1조 1,600억원)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고 CNN이 29일 보도했다. 중국이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을 강화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8일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정상회담 개막 연설에서 양측이 “미국과 태평양 파트너십 관계 선언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월 중국이 태평양 도서국 10개국과의 회담에서 자유무역지역과 해양어업을 포함하는 안보 조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과 큰 대조를 보인다.

전략의 목표는 미국·태평양도서국 관계 강화와 태평양도서국과 국제사회 관계 강화, 기후위기 등 21세기 과제를 해결할 역량 강화, 도서국의 자율권 확대와 번영 등 크게 4가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미국은 뉴질

랜드 자치령으로 간주했던 쿡제도와 니우에를 주권국으로 인정하고 태평양 지역의 미국대사관을 기존 6개에서 9개로 늘릴 예정이다. 또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3개국과 외교관계를 규정한 자유연합협정(CFA) 갱신 협상을 연내 타결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 어선의 조업을 허용하는 남태평양 참치 협정에 따라 도서국에 10년간 6억 달러 규모의 경제지원을 제공한다. PNA 선박조업일수제도(VDS)에 따른 참치 어업 허가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미국 선단이 키리바시, 투발루, 토켈라우와 같은 도서국에서 조업 일수 구매를 원한다면 아메리칸 사모아 수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양자 협상 기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주요 목표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참치가 풍부한 키리바시를 미국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0월 4일자

라니냐 현상 올해 말까지 지속 예상

3년 연속 지속은 21세기 들어 처음

세계기상기구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이 3년간 지속되는 이른바 '트리플 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트리플 딥 현상이 발생한 것은 21세기 들어 처음이다.

그러면서 라니냐가 오는 9~11월까지 이어질 확

률은 70%, 올 12월~내년 2월까지 늘어질 가능성은 55%로 내다봤다.

라니냐 발생이 어획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동부태평양에서의 참치 어획량이 증가한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9월 23일자



PNG, 수산물 지속가능성 운동 선두주자 목표

MSC 인증 취득 및 추적가능성 증진 적극 추진

태평양 도서국 파푸아뉴기니(PNG)의 어업산업협회(FIA) 대표들은 2022년 9월 14~16일 동안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수산엑스포 아시아에서 PNG의 목표가 해양 관리협회의(MSC)의 참치 어업에 대한 요구사항 충족을 넘어, MSC 인증을 근시일 내에 게, 랍스터, 틸라피아 등 타 어업에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PNG의 첫 MSC 인증 취득은 2020년 선망선 참치 어업에 대한 것으로, PNG의 EEZ 및 군도 수역(archipelagic water)에서 가다랑어와 황다랑어를 어획하는 선단 64척이 대상이다. 이 중 32척은 PNG, 32척은 필리핀 어선이다.

FIA의 26개 회원사는 최근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2021년 MSC 인증 황다랑어, 가다랑어, 눈다랑어를 총 12만 3,266톤 어획했다고 밝혔다.

FIA 지속가능성 부장 Marcelo Hidalgo는 MSC 인증이 주요 목표이나, PNG의 최종 목표는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 2018년 채택된 PNG의 책임조달정책(RSP)으로, 이 정책의 4가지 핵심 중 두 번째는 '추적가능성'이다. FIA 노력의 일환으로, PNG 어업은 모든 참치 어선에서 실시간에 가까운 추적가능성을 확보했다.

추적 프로그램은 통합 어업관리 시스템으로, PNG의 국가어업관리국(FNA)의 데이터와 동기화된다.

Hidalgo는 어업자들이 보고를 위해 선박에 탑재된 태블릿을 사용하며, 정보가 자동으로 NFA 서버로 전송된다고 말했다. 양륙·전재를 포함한 해당 항차 관련 모든 정보가 정보 나열 어플리케이션에 수집된다. 옵서버들은 이 과정 동안 정확성 여부 확인 작업을 지원한다.

Hidalgo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나우루협정당사국(PNA)의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는 PNG가 유일하다.

FIA측은 PNG가 RSP의 세 번째 핵심인 해양 폐기물 감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FIA에 따르면 PNG 참치 어업의 혼획률은 1% 미만을 자랑한다. 또한 PNG는 FAD 사용 감축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PNG 어획량에서 FAD의 비중은 매우 적다.

FIA에 따르면 RSP의 네 번째 핵심인 선원 복지 또한 개선 중이다. FIA는 FISH(Fairness, Integrity, Safety, and Health) 선원 표준(Standard for Crew)의 2022년 초 감사 절차 완료 후 인증 취득을 기다리고 있다.

Hidalgo는 참치 어업에 대한 RSP 이행 완료 후 PNG의 다음 목표가 이러한 관행을 국가의 전 어업 및 양식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0월 7일자



日 8월 냉동 참치 원어 수입 통계 발표

한국산 눈다랑어 160톤 수입

어종·국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누계
날개 다랑 어	한국	113	6	16	96	44	98	158	179	710
	대만	625	298	49	951	-	635	412	804	3,774
	바누아투	-	1	71	522	436	301	-	-	1,331
	기타	15	15	-	2	26	146	45	315	564
	소계	753	321	137	1,569	506	1,179	614	1,298	6,377
황다 랑어	한국	221	210	596	513	539	163	331	396	2,969
	중국	47	284	120	430	550	553	207	165	2,356
	대만	603	1,031	1,318	2,425	1,603	1,601	617	1,183	10,381
	필리핀	123	-	131	493	69	50	-	98	964
	인도네시아	-	-	-	-	-	-	25	-	25
	미국	-	-	-	-	-	-	-	-	0
	바누아투	148	24	72	103	248	249	381	390	1,615
	피지	23	50	-	-	-	68	62	9	212
	키리바시	29	-	-	-	101	135	33	138	436
	마셜제도	551	-	149	50	51	50	-	50	901
	기타	564	587	568	1,316	410	815	555	504	5,319
	소계	2,309	2,187	2,954	5,329	3,573	3,685	2,210	2,933	25,180
눈다 랑어	한국	11	30	27	113	412	299	255	160	1,307
	중국	177	467	502	592	339	1,409	574	410	4,470
	대만	1,372	2,158	2,438	4,084	1,632	3,329	1,060	2,671	18,744
	세이셸	103	874	310	792	526	671	177	353	3,806
	바누아투	138	318	47	629	490	790	114	286	2,812
	기타	135	32	207	110	239	156	537	27	1,443
	소계	1,937	3,880	3,531	6,319	3,638	6,653	2,716	3,906	32,580
남방 참다 랑어	한국	449	-	-	-	-	-	-	-	449
	대만	95	5	-	2	4	1	-	8	115
	호주	-	-	-	-	-	-	1,547	1,243	2,790
	소계	544	5	-	2	4	1	1,547	1,251	3,354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10월 6일자



日 8월 냉동 눈다랑어 kg당 1,074 엔

한국산 눈다랑어 필렛 가격 전월 대비 4% 상승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참치류의 8월 수입실적은 선어·냉장 수입량 530톤(지난해 동월 대비 21% 감소), 수입금액 10억 9,700만엔(6% 증가), 냉동 1만 4,128톤(10% 감소), 159억 3,000만엔(14% 증가), 가공품 5,076톤(45% 증가), 39억 6,900만 엔(83% 증가)를 기록했다.

냉동 눈다랑어의 수입량은 3,906톤(10% 증가)이며, 이 중 주력인 대만산 수입량은 2,671톤(40% 증가)을 기록했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증가는 향후 공급난을 우려해 상사 측이 적극적으로 매입했기 때문이다. 중국산(410톤, 66% 감소) 수입이 감소되었으나 대만산

매입 증가로 인해 상쇄되었다. 다만 해외 선박 출어 척수는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냉동 눈다랑어 대만산의 8월 가격은 kg당 1,074 엔(27% 상승)으로, 올해 2월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눈다랑어 필렛 수입량은 894톤(29% 감소), 가격은 kg당 2,022 엔(25% 상승)으로 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필렛의 65%를 차지하는 한국산의 가격은 kg당 2,128 엔(24%)으로, 7월 가격 대비 4% 상승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10월 6일자

만타 가다랑어 가격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 유지

금어기 끝나가는 상황에서 1,850 달러

동부태평양에서 72일 동안 선망선의 절반에 어업을 금지하는 금어기(veda)가 끝나가고 있다.

현재 만타 냉동 가다랑어 원어 가격은 톤당 1,850 달러로 지난달 보다 50 달러 상승했다. 올해 4월 가격과 동일하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거래가 5년 내 최고치인 1,900 달러에 이뤄졌다.

금어기 종료 시점인 10월에 통상적으로 가격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지난 몇 달간의 이례적 고가 현상을 감안하면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 한다.

만타에서 고가 현상이 지속된 주된 이유는 오랜 기

간 조업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어황에 대한 분위기도 불확실하다는 쪽이다. 하지만 라니냐 현상이 올해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동부태평양 어황이 나아질 수도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국제 선박이 만타에 하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저가의 중서부태평양이나 대서양, 인도양 참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9월 29일자



상반기 태국 참치캔 美 수출 감소

美 참치캔 수입량 지난 5년간 최저

올해 상반기 미국의 참치캔 수입이 지난 5년간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공급업체들은 타격을 입었다. 특히 태국 가공업체는 3,720만 달러의 매출 감소를 겪었다.

2022년 상반기 미국의 참치캔 수입량은 5만 8,627 톤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0피트 컨테이너 약 500대 분량이 감소한 수준이다. 평균 수입 가격은 톤당 4,593 달러로 큰 변화가 없었다.

미국의 최대 참치캔 공급국인 태국의 매출은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 태국의 2022년 상반기 미국행 참치캔 수출량은 3만 3,478톤으로 20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태국의 미국행 참치캔 수출은 1분기에 이미 20%나 감소했고, 상반기에는 거의 8,200톤이나 감소했다.

반면 멕시코는 톤당 가격이 3,806 달러로 지난해 대비 555 달러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운송·물류 비용(해상으로 운송하는 경쟁국 대비 저렴)과 저렴한 가격에 힘입어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5% 감소)인 7,192톤을 수출했다.

Wild Planet 브랜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베트남산 참치캔의 미국행 수출량은 5,691톤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톤당 가격은 매우 높은 6,532 달러를 기록했다.

에콰도르의 상반기 미국행 참치캔 수출량은 지난해 대비 4배 이상인 2,882톤이다. 톤당 가격은 4,224 달러로 566 달러 감소했다.

FOB 가격이 매우 낮은 중국의 수출량은 25% 과세에도 불구하고 343톤 증가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9월 30일자

미국, 참치 파우치 수요 증가

올해 상반기 수입량 5년 간 최대

미국의 소매업체와 수입업체의 올해 상반기 참치 파우치 수입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12% 증가한 2만 6,208톤이었다. 이는 상반기 기준 5년 간 최대 물량이다. 톤당 평균 수입 가격은 5,505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4% 상승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에콰도르 가공업체들의 상반기 수출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4% 증가한 8,942톤으로 태국을 추월했다. 톤당 평균 가격은 2% 하락한 5,960 달러이며 주요 수출 국가 중 가장 높았다. 가격은 FOB 기준으로 운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태국의 수출량은 14% 증가한 8,377톤이었다. 톤당 평균 가격은 7% 상승한 5,329 달러이다.

스타키스트는 세네갈 S.C.A.SA 공장에서의 주문을 39% 늘렸다. 2018년과 비교하면 240% 가까이 증가했다.

베트남의 수출량은 53% 증가한 991톤을 기록했다. 2020년 동기 대비 150% 이상 증가했다. 톤당 평균 가격은 2,785 달러로 가장 낮았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0월 10일자



오만 어업회사, 에콰도르 어업회사와 어업 계약

황다랑어 500톤 어획 목표

오만에서 가장 큰 참치 및 수산물 가공업체인 Oman Fisheries Company는 에콰도르에 기반을 둔 Transmarina사와 상업 어업 계약을 체결했다.

Oman Fisheries Company는 “현대식 상업용 어선 개발 관련 회사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Transmarina와의 파트너 조건 계약 체결을 주주들에게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Oman Fisheries Company가 Muscat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공개 자료에 따르면 계약 체결에 따른 어선은 영하 40oC 냉동 설비를 갖추고 있다.

Oman Fisheries Company는 초기 단계에서

Transmarina의 어선이 연승어법으로 황다랑어 500톤 어획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Oman Fisheries Company는 가공, 부가가치화를 통해 황다랑어를 국내외에 판매할 예정이다.

한편, Oman Fisheries Company는 올해 5월 소형 부어류(청어, 고등어, 정어리 등)를 전문적으로 조업하는 아일랜드 회사 Atlantic Dawn과 상업 어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계약에 따라 Atlantic Dawn은 오만으로 어선을 가져올 예정으로 소형 부어류 3만톤 어획을 목표로 한다.

* 기사 출처: MuscatDaily, 2022년 10월 1일자

에콰도르 참치어선 연료 지원 중단 논의

에콰도르원주민연합, 정부에 요청

첫 번째 금어기(veda)에 102척의 에콰도르 국적 선망선 중 46척이 조업을 중단했고 이제 조업이 재개할 예정이다. 금어기 종료 직전 에콰도르 참치어업협회(ATUNEC)는 정부가 참치 선박에 대한 연료 지원을 없애기로 결정하면 에콰도르 참치 산업 전체의 파산이 눈앞에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 6월 30일 몇 주간의 전국적인 시위 이후 에콰도르원주민연합(CONAIE)과 합의를 이뤘다. 연합은 에콰도르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에콰도르 빈곤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연료비 절감을 요구했다. 에콰도르 일간지 La Hora Ecuador에 따르면 CONAIE와 다른 그룹들이 대

화 테이블에서 주장한 사항 중 어업과 같은 수출 부문 연료 보조금이 ‘충분한 수입과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2022년 9월 국영석유기업 Petroecuador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에콰도르 참치 어업 부문은 디젤 공급에 있어 1갤런당(0.42 리터) 1.585 달러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프리미엄 디젤은 1갤런당(0.47 리터) 1.792 달러, 추가 휘발유는 갤런당(0.23 리터) 0.868 달러를 받는다. 생체형 어업은 갤런당(0.44 리터) 1.668 달러를 경감 받는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0월 10일자



EU 상반기 참치캔 수입량 8% 증가

필리핀산 수입량 24% 감소

올해 상반기 EU의 참치캔 수입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8% 증가한 27만 5,427톤으로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수입금액은 13억 5천만 유로에 달했다.

EU 내부에서의 수입량이 EU 외부에서의 수입량보다 더 크게 증가했다.

EU 외부에서의 수입량은 2% 증가했다. 원산지로는 보면 필리핀산, 파푸아뉴기니(PNG)산, 세이셸산의 수입량이 각각 24%, 13%, 8% 감소했다. 반면, 에콰도르산 수입량은 13% 증가했다.

EU 외부 수입의 톤당 평균 수입금액은 15% 증가한 4,387 유로이다. 원산지로는 보면 세이셸산이 톤당 5,346 유로로 가장 높았다. PNG산은 3,890 유로로 가장 낮았지만 지난해 대비 12% 상승했다.

EU 외부로부터의 참치캔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주요 원인은 유럽 소매업체와 수입상이 지난해 4분기에 충분히 재고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수입량은 3분기 대비 11만 3,212톤 더 많았다. 독일은 FAD 조업 금지가 종료된 후 원어 가격이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은 9~10월에 참치캔 구매 계약을 주로 체결한다.

EU 내부에서의 참치캔 수입량은 16% 증가했다. 스페인산 수입량이 9% 증가하며 여전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전체적으로 EU 내부로부터의 CRF 기준 톤당 평균 참치캔 수입금액은 7% 상승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9월 16일자

관광 회복, 스페인·이탈리아 참치캔 수입량 급증

상반기 스페인 73%, 이탈리아 26% 증가

올해 상반기 EU의 참치캔 수입량이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이 해제되어 식당·카페가 개방되고 관광산업이 회복되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수입량이 크게 증가했다.

국가별 수입 현황을 보면 이탈리아의 참치캔 수입량은 지난해 대비 26% 증가한 5만 2,548톤으로 EU 국가 중 가장 많았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순이었다. 이탈리아의 CFR 기준 톤당 평균 수입가격은 5,959 유로로 가장 높았다. 수입가격이 높은 주된 이유는 2021년 말 이후 가격이 25% 상승한 올리브오일 황다랑어 캔 때문이다.

스페인의 수입량은 73% 증가한 3만 1,202톤으로 EU에서 4번째로 많았다. 올해 상반기 동안 스페인에 방문한 해외 관광객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6배 증가했다.

독일의 참치캔 수입량은 2021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4만 3,608톤이며 2020년 동기와 비교하면 23% 감소했다. 네덜란드 수입량은 39% 감소했다.

프랑스는 수입량 2위 국가로 올해 상반기 수입량은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인 4만 8,752톤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9월 19일자



EU, WCPFC 조업선 관련 새로운 어업 규정 승인 전재 신고 관련 조항 개정

이번 주 유럽의회 의원들은 EU 국적 선박에 적용되는 새로운 어업 규정을 승인했다. 이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관할 구역 참치 어업뿐만 아니라 북서대서양어업기구(NAFO) 대구 및 넙치 어업에 대한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매년 지역수산기구에서 관련 주요 조치가 시행되고 EU 당국은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이번에 승인된 내용 중 전재 신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유한 문서식별자, △어선명과 WIN(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식별 번호), △운반선명과 WIN, △조업

에 사용된 어구, △전재될 어획물1의 수량(종 및 가공 상태), △어류 상태(신선, 냉동), △전재될 비참치 및 참치 유사어종 등 부수 어획물 수량, △고도회유성 어종이 어획된 지리적 위치, △전재 일자 및 위치, △해당되는 경우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옵서버 성명 및 서명, △운반선의 기존 선적 수량 및 해당 어획물의 원산지, △지역 옵서버 프로그램 및 상어, 쥐가오리(mobulid rays), 바다거북, 고래류와 같은 민감한 해양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모범 관행과 관련된 기타 조치.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9월 14일자

EP, 인도양 참치 선단에 대한 새로운 규정 동의 생분해 FAD 전환 촉구, 상어 부수어획 모범 사례 적용 등

유럽연합 의회(EP)는 지난 10월 4일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에서 2000~2021년에 채택되고 갱신된 사항을 이행하는 새로운 규정에 동의했다. 해당 규정은 추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규정에는 비영킹 FAD의 사용과 생분해성 FAD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U 선단은 데이터 부이 1해리 내에서 의도적으로 조업해서는 안되며 상어, 가오리, 거북이를 보존하기 위한 IOTC 식별 가이드 및 취급 관행을 적용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황다랑어 조업을 하는 회원국은 적절한 IOTC 보고

서식을 사용해 전년도 기준 황다랑어를 어획한 선박 목록 등을 매년 2월 1일까지 IOTC에 제출해야 한다.

EU 회원국과 IOTC가 장완홍상어, 진환도상어, 청새리상어와 같은 특정 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때 기후 변화가 개체 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이외 데이터 보호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EU 선단은 서부 인도양에서 21만 7,000톤의 어류를 어획했다. 국가별로 보면 스페인 선단이 69%, 프랑스 선망선단이 28%, 이탈리아 2%, 포르투갈 1%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0월 10일자



EU, ICCAT 어획 전략 채택 지지

올해 11월 회의서 채택 원해

NGO 퓨(Pew) 자선재단에 따르면, 유럽연합 위원회(EC)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가 오는 11월 회의에서 어획 전략을 채택하도록 압박할 계획이다.

퓨 자선재단에 따르면 연간 1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는 자원인 대서양 참다랑어는 지난 수십 년간 ICCAT 52개 회원국의 쿼터 배분 요구대상이었고, 이것이 “심각한 자원 고갈”을 초래했다.

퓨 자선재단은 “이러한 추세가 2009년 ICCAT이 동대서양과 지중해에서 적절한 재건 계획을 세우면서 바뀌었고, 재건 계획은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지속가능한 관리에 대한 약속은 ICCAT 회원국들이 11월 회의에서 대서양 참다랑어의

어획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성문화될 수 있다”며 “이 사전협의된 지속가능한 장기 관리 대책은 매년 있는 쿼터 배분 협상을 종식시키고, ICCAT의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했다.

퓨 자선재단은 재단과 유럽의회(EP) 의원 Clara Aguilera가 공동 주최한 웹 세미나에서, EU가 올해 11월 어획 전략 채택에 대한 의지를 다시 밝혔다고 전했다.

Ocean Foundation의 국제 어업 보존 프로젝트 책임자인 Shana Miller는 해당 웹 세미나에서 “대서양 참다랑어 커뮤니티가 올해 어획 전략 채택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9월 14일자

EU-마다가스카르 어업 협정 체결 눈앞

참치 1톤당 약 220 유로

EU와 마다가스카르가 며칠 내로 새 어업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마다가스카르 측이 참치 어업에 대한 대가로 더 많은 돈을 원했기 때문에, 원만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7번의 협상이 필요했다. 양측의 마지막 합의는 3년 전 만료되었다.

EU 국적 선단은 이제 마다가스카르에서 참치 1톤을 어획하기 위해, 이전 합의 대비 78 유로 증가한 220 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마다가스카르 EEZ에서 조업 허가를 받은 EU 선단의 척수가 25~30% 감소할 예정이다.

마다가스카르 수산·해양자원청은 어획량이 연간 1

만 4,000톤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다가스카르 당국은 이번 합의로 인해 수입이 36~40%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다가스카르 수산·해양자원청에 따르면 마다가스카르가 EU의 참치 입어를 통해 받는 금액은 인도양 국가들이 이러한 합의를 통해 받는 금액 중에서 높은 수준이다. 모리셔스의 경우 톤당 231 유로를 받고, 세이셸은 톤당 191 유로를 받는다.

EU 선단은 이들의 수역에서 최대 5개월을 보내고, 해안 40km 밖에서 어업을 진행한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9월 30일자



중국 포함 선망어업 3개사, MSC 범위 확장 추진

PNA 어업 MSC 범위 확장 문제는 여전히 논란

PNA 수역에 대한 해양관리협의회(MSC) 선망선 인증은 점점 더 많이 쌓여가고 있다. 마이크로네시아와 중서부태평양 공해 어업에 대한 MSC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선망어업 3개사는 이제 모든 PNA EEZ에서의 스크 및 FAD 조업으로 인증 범위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적합성평가기관 Control Union(UK)은 중국 기업 2개사(Liancheng Overseas Fishery (FSM) Co. Ltd, Da Yang Seafood)와 마이크로네시아 기업 1개사(Caroline Fisheries Corporation)의 MSC 평가에 대한 의견통지보고서 초안(ACDR)을 발표했다.

현재 중서부태평양 수역에서 MSC 인증 획득 어업은 11개이며 이 중 6개 어업은 인증 범위 확대를 추진 중이다.

Atuna가 지적하는 문제 중 하나는 중서부태평양에서 인증된 많은 참치 어업들이 서로 중복된다는 것이다. 많은 선망선들은 여러 MSC 인증에 등록되어 있다.

한편, 약 250척이 해당되는 PNA 어업의 MSC 인증 범위 확장(눈다랑어 및 FAD 어업)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9월 22일자

ANABAC, 인도양 가다랑어 어업 MSC 인증 추진

스페인·세이셸 국적선 8척 인증 대상

스페인 바스크 참치 냉동선단을 대표하는 ANABAC 협회에 속한 스페인 선사 Pevasa와 Atunsa가 인도양 가다랑어 어업에 대한 해양관리협의회(MSC) 인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협회에는 Echebaster라는 스페인 선사도 속해 있으나, 이들은 2018년 자체 인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번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

의견통지보고서 초안(ACDR, 총 6단계 중 2단계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Pevasa와 Atunsa에 속한 어

선 8척(4척 스페인, 4척 세이셸 국적)이 이번 평가에 참여한 상태이다. 2020년 해당 선단의 참치 어획량은 총 2만 3,311톤이었다.

이해관계 당사자는 초안 보고서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26일까지 이를 제출해야 한다.

ANABAC는 2021년 대서양 황다랑어 선망 스크 조업 MSC 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9월 30일자



방글라데시, 참치 어업 외국인 투자자 유치 고심

즉각적 자원 평가 필요...자국 트롤선주에게 합작 진출 제안

방글라데시 수산부는 벵골만 참치 허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어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 유치 방안을 찾고 있다.

2016년 허가 설정 이후 벵골만 수심 200m 이하 연승 또는 선망 허가를 받은 회사는 17개사에 불과하다. 지난해 허가를 받은 4개사는 이를 구체화할 어떠한 어선도 아직 확보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 중 2개사는 허가를 위해 수산부에 선박 명세를 제출했다. 규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회사는 2년 이내에 어선을 보유하고 어업을 시작해야 한다.

방글라데시 수산부 전(前) 국장인 Nasiruddin Md Humayun은 어업 허가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 인도양 참치 자원에 대한 즉각적인 평가를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종들이 발견되는지, 고도회

유성 어종이 연중 언제 많이 발견되는지 알아야 하며 이는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방글라데시는 참치 등 원양어업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었다. 수산부 관계자는 이제 수심 40m 이하에서 조업하는 방글라데시 어선들이 외국 자본가와 합작 투자해 참치를 어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외국 자본가는 지식과 경험을 247척의 산업용 트롤어선 선원들에게 전수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 EEZ에서는 현재 6만 8,000척의 어선이 조업하고 있다. 이 중 산업용 어업은 어선 어업 어획량의 13%를 차지한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9월 27일자

스페인 황다랑어 가격, 기록적 수준 유지

대서양 어획 부진 영향

소식통에 따르면 스페인 가공업체로 운송되는 황다랑어 가격은 여전히 기록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9월 스페인 대형 황다랑어 가격은 CIF(비용, 보험료, 운임 포함) 기준 톤당 3,250 유로(약 3,173 달러)를 기록했다. 7월 가격(톤당 3,350 유로)에 비하면 하락했으나,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500 유로나 높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러한 고가는 대서양의 어획 부진의 영향이 크다.

대서양 가공 허브인 코르디부아르 아비장의 10kg 이상 냉동 황다랑어 원어 월 평균 가격은 톤당 3,000 유로로, 전월 대비 10% 상승했다.

인도양 허브인 세이셸의 황다랑어 가격은 톤당 2,700~2,900 유로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9월 30일자



Calvo, 2025년 지속가능 계획 성과 평가

포장재, 이력추적, 조달, 에너지 등 상당한 진전

스페인 참치 가공업체 Calvo가 2025년 지속 가능성 전략인 '책임있는 약속(Responsible Commitment)'을 2025년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전략은 해양, 환경, 사람 세 가지 주요 범주로 나누어 17개 목표를 제시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 방식 창출을 목표로 한다.

Calvo가 발표한 해당 전략 관련 2021년 성과에 따르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먼저, 99%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과 관련,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의 절반 이상이 재활용된 재료이거나 지속 가능한 것으로 인증되었다. 2025년 목표는 85%이다.

다른 개선은 이력추적시스템 확대이다. Calvo는 2017년에 해당 시스템을 선보였으며 현재 정보 확인이 가능한 제품은 그룹 전체 제품의 24%이다.

스페인 사회적 책임 로고(APR), 해양관리협의회(MSC)와 같은 인증에서 참치 로인을 조달한 비중은 66.8%였다. 2025년 목표는 100%이다.

환경 영향에 대한 목표와 관련해서는 이미 폐기물의 96%를 회수하고 있다. 또한, 전기 수요의 50%를 재생 가능 자원에서 조달한다. 2025년 목표는 84.4%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9월 28일자

Princes, 참치캔 대체 라인 출시

4가지 종류, 140g 2.99 유로

네덜란드 2위 참치 브랜드 Princes사는 식물성 참치캔 대체 라인을 출시했다. 제품라인은 4가지로 소금물, 해바라기유, 올리브유, 매운 소스 야채이다.

Princes사는 자사 보유 참치캔과 참치 대체 제품을 같이 홍보하고 있다. 대체 제품 단독 판매자인 네덜란드 소매 선도 기업 Albert Heijn의 매대에는 참치캔과 대체 제품이 나란히 진열되어 있다.

네덜란드는 자신을 반(半)채식주의자(flexitarian, 채식을 위주로 식사하되 가끔 육류나 수산물 등도 섭취하며 대체 육류·수산물 선호하는 사람)로 정의하

는 인구 비율이 42%로 매우 높다. 독일은 30%, 영국은 23%이다.

대체 참치캔은 순중량이 140g으로 2.99 유로(올리브 오일 제품 3.09 유로)에 판매된다. 제품에는 참치를 나타내는 'Tonijn(참치의 네덜란드어)'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제품에는 물·밀단백 25%, 유채씨유 2.5%, 밀 섬유, 밀가루, 전분, 천연 향료, 산화철 색소가 함유되어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0월 4일자



참치 짙은 부위 섭취, 장수에 도움 시험 결과, 혈중 셀레노네인 및 시르투인 양 증가

일본수산연구교육기구와 성마리아나대학(St. Marianna University)의 과학자들은 공동으로 짙은색 참치육의 항산화 효과를 연구했다.

1차 시험은 지난해 10월 5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피험자들은 3주 동안 주 3회 눈다랑어 붉은 부위와 짙은 부위를 80g 또는 120g 섭취하고 혈중 셀레노네인(selenoneine)의 양을 측정했다.

연구원들은 붉은 부위보다 40배 더 많은 셀레노네인이 함유되어 있는 짙은 부위를 섭취하면 혈액에 셀레노네인이 훨씬 더 많이 축적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시르투인(장수 유전자라고 불리는 단백질의 일종)의 양은 섭취 참치 양에 비례해 증가했다. 시르투인은 세포의 노화·사멸·스트레스 저항성을 포함한 세포 과정을 조절하는데 관여한다. 시르투인 활동은 매일 하루 80g을 섭취했을 때 30%, 120g을 섭취했을 때 70% 증가했다.

2010년 일본 연구자들은 참치의 혈액과 조직에서 유

기 셀레늄의 주요 형태이자 셀레늄 함유 화합물인 셀레노네인을 분리했다. 그들은 셀레노네인이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대형 포식 어류에서 발견되는 셀레늄은 체내 수은의 영향을 중화시킨다.

연구 코디네이터인 우스이 카즈시게는 참치 섭취에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나, 짙은 부위는 산화로 인해 빠르게 변질될 수 있어 품질이 낮으면 정반대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짙은 부위의 가공 및 조리 방법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는 눈다랑어로 이뤄졌지만 참다랑어, 가다랑어, 황다랑어, 날개다랑어에도 셀레노네인이 함유되어 있다.

현재 1차 연구 외 다른 47명의 피험자가 추가 시험을 받고 있다. 데이터와 추가 설문에 대한 응답을 포함한 결과는 내년 가을에 발표될 예정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9월 23일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미국 포케 시장 건강식이라는 인식과 포장 용이성이 장점

시장조사 업체인 Technavio에 따르면 미국 포케 시장은 2026년까지 약 7억 8,190만 달러(7억 8,660만 유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포케는 건강식이라는 인식과 포장에 용이한 특성을 살려 패스트 캐주얼 및 퀵 서비스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인기로 힘입어 포케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많은 프랜차이즈 포케 식당들이 올해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 기사 출처: 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2022년 9월 7일자



포클랜드 Fortuna, 오징어 트롤선 신조 발표

2025년 초에 포클랜드 로리고 조업 투입

포클랜드제도에서 가장 큰 민간기업인 Fortuna는 기존 트롤어선 'FV Capricorn호'를 대체할 신조선의 건조를 시작했다.

신조선은 스페인 비고에 있는 Nodosa 조선소에서 이미 건조 작업이 시작되었고 2024년 말 가동을 시작해 2025년 첫 번째 포클랜드 로리고 오징어 어기에 투입될 예정이다.

Fortuna의 합작투자 회사인 Petrel Fishing이 소유 및 운영하는 신조선 'FV Prion호'는 포클랜드에 등록될 것이다.

Fortuna는 'FV Prion호'가 파트너와 함께 3년 간 2번째로 신조하는 어선이라고 밝혔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9월 23일자

日 “해외 오징어 원료 수급 올해도 어려워”

페루산 대왕오징어 생산 감소, 일렉스오징어 가격 상승 등

일본 일간수산경제신문에 따르면, 해외 오징어 원료 사정은 이번 어기에도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남미 대왕오징어는 페루의 생산량이 감소했다. 아르헨티나 일렉스오징어와 러시아 살오징어는 해외 수요 회복 및 엔화 약세 등으로 인해 지난해 대비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현지 상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페루의 오징어 생산량은 약 47만톤이다. 그러나 올해는 해면 수온이 하락하는 ‘라니냐’ 현상의 영향으로 인해 어획이 저조했다. 올해 봄까지의 어획량은 지난해 대비 40% 감소했다. 상사 관계자는 만일 페루의 어획 부진이 계속된

다면 최종 생산량은 지난해의 절반 이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올해는 어장이 멀고 냉동 원료에 부적합한 어획물이 많기 때문에, 냉동 원료 공급량은 어획량보다 더욱 심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칠레(생산량 연간 5~6만톤 규모)와 적도 부근에서 조업하는 중국(연간 30만톤 규모)의 대왕오징어 어획은 비교적 순조로우나, 주요 생산국인 페루의 생산 감소 영향으로 인해 원어 가격은 상승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9월 29일자



러시아, 새로운 수산 전략 채택

주요 목표로 부가가치 제고, 선단 현대화, 소비증가 설정

러시아는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격변으로 이전 전략이 무용지물이 된 후 새로운 농수산 개발 전략을 채택했다.

새로운 수산 전략은 이전과 같이 부가가치 수산 제품의 생산 증가 및 품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30년까지 어획된 수산물 1톤에서 50%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가 설정되었다. 이는 이전 전략과 동일하며 이전 전략 목표는 달성된 바 있다.

2030년까지 수산 가공품 생산량 목표치는 61만 8,000톤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선단 및 수산물 가공 현대화, 양식 생산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계속 추진될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새로운 전략 과제에 2030년까지 1,365억 루블(23억 달러)을 투입할 것이며, 대부분이 과학 및 구조 선박에 사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새로운 전략에서 변경된 사항의 대부분은 양식 사료 제조, 유전자, 선박 및 설비 설계-제조 회사 등 최근 서구 회사가 러시아에서 철수한데 따라 기업 인센티브 제공과 수산 과학에 대한 추가 투자와 관련된 것이다.

러시아는 2016년 투자할당 프로그램을 시작해 2024년까지 105척의 신조선을 건조할 계획이었다. 올해까지 10척이 완공되었고 2023년에는 9~10척이 회사에 인도되거나 진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전략에는 러시아 수산물 소비 증가도 주요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이후 많은 수출 시장이 러시아와의 무역을 폐쇄하거나 제한했다. 러시아는 어업 생산량이 수산물 소비의 153.2%로 완전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하지만 러시아가 생산하는 수산물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있다. 전략에 따르면 러시아 총 어업 어획량은 2024년 507만톤, 2030년 513만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국내 어업 생산량의 약 75%가 극동 지역에서 발생한다. 블라디보스토크와 모스크바 사이의 주요 철도 운송 회랑 길이는 9,000km가 넘고 냉동 컨테이너가 부족해 운송에 어려움이 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9월 28일자

FSA, 동캄차가북쿠릴 명태어업 MSC 인증 획득

모든 명태 조업구역 인증 완료

Russian Fishery Company(RFC)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러시아어선선주협회(FSA)가 동캄차카, 북쿠릴 명태어업에 대한 해양관리협회의(MSC) 인증을 받았다.

FSA는 이제 모든 명태 조업구역에서 MSC 인증을

받았다.

FSA가 앞서 인증을 받은 수역은 오후츠크해, 서베링해, 동사할린이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9월 23일자



러시아 3분기 어획량 약 370만톤

2021년 대비 4% 감소...명태·청어 증가

러시아 수산청 Rosrybolovstvo에 따르면 2022년 9월 말 시점 러시아의 총 자연산 어획량은 370만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 감소했다.

러시아 극동 지방의 명태 어획량은 130만톤으로 18만 2,200톤 증가했다. 태평양청어 어획량은 31만 8,400톤으로 6만 3,000톤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상승은 연어 어획량 감소로 인해 상쇄되었다. 태평양연어 어획량은 26만톤으로 지

난해 대비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다.

러시아 북부 어획량은 41만 2,000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거의 비슷했고, 서부 어획량 또한 지난해 동기 어획량과 비슷했다.

해의 수역, 협약 수역(convention areas), 공해 어획량의 합계는 40만 1,300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3.3% 감소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10월 4일자

中 명태 산업 회복세

수산 대기업 Joyvio Foods 수익 급증

중국의 러시아산 명태 수입·가공 산업이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수산 대기업 Joyvio Foods는 2021년 상반기 1억 3,600만 위안의 손실을 기록했으나, 2022년 상반기에 1억 5,500만 위안(약 2,24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컴퓨터 메이커 '레노버(Lenovo)'를 산하에 둔 'Legend Holdings'가 소유한 Joyvio Foods는 세계적인 물가 상승 및 러시아산 명태 수입·가공 산업 시장 개선의 수혜를 받고 있다.

Joyvio Foods의 명태 가공 자회사이자 수입업체인

'China Starfish'는 2022년 상반기 매출액 4억 7,800만 위안(6,907만 달러), 이익 3,334만 위안(482만 달러)을 기록했다.

Joyvio Foods는 명태 사업이 EU와 미국의 수요 증가 및 세계적인 원재료 부족으로 인해 이익을 봤다고 분석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022년 상반기 동안 중국은 2021년 상반기 수입량의 2배 수준인 총 34만 400톤의 냉동 명태를 수입했다.

* 기사 출처: 훗카이도 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 2022년 9월 17일자



러시아, 수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강화

지분 보유 25% 승인 범위 어업 외 가공·저장 등으로 확대

러시아가 기존 규정 강화를 통해 자국 수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강화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미 특정 수산물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 규모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제 이 제한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자국 수산업을 증대한 식량 안보의 일환으로 간주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9월 말, 러시아 하원은 자국 수산물 부문 투자규칙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비(非) 러시아인의 어획, 가공, 저장, 운송과 관련된 러시아 기업 지분 보유 비율이 25%를 초과할 경우 정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전에는 이 요구사항이 어업에만 적용되어 가공, 저장, 지원 등의 서비스가 외국인에게 개방되었다.

해당 법안의 지지자들은 수산업의 외국인 지분이 잠재적으로 러시아의 식량 안보나 국익을 해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러시아 연방의회(상원)에서 표결 중이며, 상원에서 승인될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푸틴의 정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대부분 승인된다.

이 안건이 법으로 제정되면 1년 안에 러시아에서 운영되는 수산물 관련 기업의 지분을 25%보다 많이 보유한 외국인은 정부 위원회의 승인 또는 지분 감축해야 한다. 법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나도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러시아 연방독점청(FSA)의 소송에 직면하게 된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10월 5일자

美 알래스카 동베링해 명태 자원 회복

NPFMC 조사서 37% 증가...2023년 쿼터 증가 예상

북태평양어업관리위원회(NPFMC)는 올해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미국 알래스카주 베링해 자원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동베링해 주요 어종의 자원량은 명태 415만 3,971톤(지난해 대비 37% 증가), 대구 64만 7,400톤(5% 증가)을 기록했다. 2023년 어기의 TAC는 해당 자원량을 근거로 설정될 예정이다.

동베링해 자원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2020년을 제외하고 1982년부터 매년 시행되었

다. 올해는 조사선 2척이 5월 26일~7월 31일 동안 조사했다.

동베링해의 2022년 명태 TAC는 이론적으로 생물학적 허용어획량(ABC)와 같은 111만 1,000톤이었고, 2023년 잠정 TAC는 128만 9,000톤이었다. 자원량 회복이 관측되었기 때문에, 2023년 ABC와 TAC는 2022년 수치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9월 30일자



러시아 40주차 명태, 청어 가격 하락 극동 대구 가격 상승

러시아의 2022년 40주차(10월 3~9일) 냉동어류 현물 가격은 지역 및 어종별로 다른 추이를 보였다.

러시아의 9월 30일 환율은 달러당 60.25 루블로, 전주 대비 급격한 약세를 보였다.

러시아 극동 지방 핑크연어, 대서양대구 가격은 kg당 각각 240~280 루블(약 3.98~4.65 달러), 245~285 루블을 기록했다. 전주 가격은 각각 kg당 235~275 루블, 240~280 루블이었다.

명태와 태평양청어 가격은 이번 주 kg당 100~110 루블, 55~75 루블로 하락세였다. 39주차 가격은 각각 kg당 100~115 루블, 55~80 루블이었

다.

러시아 북서부 40주차 대구, 연어 가격은 각각 kg당 240~285 루블, 245~290 루블로 상승했다. 청어 가격은 전주 kg당 65~100 루블이었으나 40주차에 60~100 루블로 다소 하락했다.

중부 지방 40주차 연어, 대서양 고등어 가격은 각각 kg당 245~295 루블, 165~195 루블로 상승했다. 명태 가격은 39주차에 kg당 110~125 루블이었으나 40주차에 105~120 루블로 하락세였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10월 10일자

노르웨이, 러시아 어선 정박 부분적 금지 안보 우려 원인

노르웨이 정부는 러시아의 고의적 파괴 공작으로 의심되는 '노르드스트림(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발트해와 인접한 해저 가스관)' 누출 사고 이후, 러시아 어선의 노르웨이 항구 정박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새 조치를 발표했다.

북유럽 수산 전문지인 Fiskeribladet에 따르면 러시아 어선은 이제 노르웨이의 수십 개 항구 중 Tromsø, Kirkenes, Batsfjord 3개 항구에만 정박할 수 있으며, 정박 시 보안 검사를 받게 된다. 이전에 러시아 어선은 Akkarfjord, Sortland, Alesund, Harstad, Fiskerstrand 항구에도 정

박이 허가되었다.

러시아 선박의 입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노르웨이 당국은 어류 채고 공동 관리 보장 및 러시아 무역 제재 품목의 밀반입 방지를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노르웨이 정부는 러시아 국적 선박의 노르웨이 항구 정박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나, EU와 달리 어업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러시아 어선에 대해 일반적 예외를 명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10월 6일자



日 공치, 소형화로 인해 어체 클수록 가격 더 상승

170g대 kg당 5,000 엔 전후

홍어가 계속되는 공치의 소형화가 심화되면서, 일본 공치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일본 미나토신문에 따르면 공치 어획량이 많았던 십 수 년 전에는 홋카이도 등지에서 어획된 대형 공치가 어기 초반인 8월부터 시장에 대량 입고되었고 어체 사이즈는 개체당 200g 정도가 주를 이뤘다.

올해는 개체당 100~110g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일본 도요스시장의 도매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이전이라면 냉동이 아닌 통조림에 사용되던 수준이었

고, 최근 들어 200g 이상은 전무해졌다고 말했다.

현재 어획 부족과 큰 사이즈 품귀 현상으로 인해 가격이 치솟고 있다. 도요스시장의 9월 하순 가격은 중심이 되는 110g은 소형에 비해 고가인 kg당 900 엔 전후를 호가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최대 사이즈인 170g은 kg당 5,000 엔 전후의 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10월 3일자

日 공치 봉수망어업, 태풍 이후 재개

27일부터 양륙량·어체 크기 모두 개선

일본 전국공치봉수망어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태풍 15호의 영향으로 중단되었던 일본 공치 봉수망 어업이 24일부터 속도를 올려, 27일부터 도토(道東, 홋카이도 동부) 어항에 양륙을 재개했다. 태풍 17호의 북상이 우려되나, 현지에서는 극도로 저조했던 공치 어업이 태풍 이후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조업 재개 후, 26일 홋카이도 하나사키항에 92톤, 앓케시항에 4톤의 공치가 양륙되었다. 어체 사이즈는 개체당 110~120g의 대형으로, kg당 1,100 엔을 호가했다.

일본 어업정보서비스센터(JAFIC)에 따르면 올

해 8월 일본의 공치 봉수망어업 양륙량은 지난해 동월 대비 반감한 821톤이었고, 평균 단가 또한 30% 하락한 kg당 323 엔이었다.

9월 초순에도 어업 실적은 저조했으나, 중순 들어 하루 200톤 이상의 어획이 3일간 계속되고 어체도 커지는 등 상황이 호전되었다가 태풍으로 인해 조업이 불가피하게 일시 중단되었다. JAFIC에 따르면 9월 시점 양륙량은 23일 시점 1,840톤으로, 지난해 9월 실적(4,183톤)의 40% 가량에 그쳤다. kg당 단가는 579 엔으로 지난해 9월 평균 대비 3% 하락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9월 27일자



日 공치 관계자 “자원 미래 위한 조치 필요”

국제 협상·유효한 규제 마련·자원 조사 필요성 강조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자원 감소 및 국제적인 어획 경쟁 등으로 일본 공치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타국과 협력한 어획량 규제 및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태 파악, 조업 형태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 높아지고 있다.

일본 공치 어획량은 1983~2014년까지 32년간 20만톤 미만을 기록한 년도가 2회에 그칠 정도로 안정적이었으나 최근 급감했다. 특히, 2021년은 2만톤 미만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 수산연구·교육기구 조사 구역인 서경 160도 이서(以西)의 추정 공치 자원량은 2003~2008년 동안 500만톤 전후였으나, 2014년 이후 300만톤 미만, 2019년 이후 200만톤 미만으로 감소했다. 일본 수산청은 먹이 부족 등으로 감소한 공치 자원이 각국의 과잉 어획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했다.

야기타 카즈히로 일본 전국공치붕수망어업협동조합 조합장은 자원이 감소하고 있으나 현재의 TAC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 자원 보존을 위한 적극적인 국제 협상을 호소했다.

과거 공치 어업을 대규모로 하는 국가는 일본뿐이었으나 이후 중국과 대만이 진출했고, 대만은 2013년, 중국은 2019년 일본의 어획량을 추월했다. 또한 2019년 이후 북태평양 공치 총 어획량은 연간 20만톤 미만이나 TAC는 연간 33만톤으로 제한이 매우 느슨한 편이다.

야기타 조합장은 공치가 2년으로 수명이 짧아 해마다 자원량 변동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매 해 자원량을 파악해 TAC를 설정하고 충분한 양의 어미 개체를 남겨 산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수산연구기구가 매년 여름 전 실시하는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시점에는 공치의 75%가 개체당 120g 이상의 어체였으나, 2022년은 80~90g이 주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야기타 조합장은 기후 변화에 따른 먹이 감소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자원의 미래를 위해 명확한 원인 규명과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9월 21일자

러시아 공치 어업 여전히 미개시

북태평양 공해서 韓·中·日·대만 어업 중

일본 홋카이도 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18일 시점 러시아는 여전히 북태평양 공치 어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이다.

러시아의 과학연구기관 ‘브니로(VNIRO)’에 따르면, 북태평양 공해에서 중국, 대만, 한국, 일본

어선의 공치 어업이 확인되었다.

북태평양어업위원회(NPFC)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자국 100해리 내 및 공해에서 약 610톤의 공치를 어획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9월 27일자



중국발-서유럽행 컨테이너 운임, 팬데믹 이전 수준

英 항만 파업·中 연휴로 해운 혼잡 예상

베이징에 본사를 둔 물류 업체 JAG UFS 그룹의 CEO Gary Wilcox에 따르면, 중국발-서유럽행 40피트 컨테이너 운임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현재의 운임은 팬데믹 시기 최고가였던 2만 달러의 25%에 불과하다.

주요 통화들의 달러 대비 약세와 해운회사들의 대형 선박 도입이 하락에 기여했다고 Wilcox는 말했다. Wilcox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하향 압력이 항공 운임에도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Wilcox는 중국 본토에서 서유럽으로 가는 항공 운임이 현재 kg당 약 7 달러이며, 이는 팬데믹 인플레이션의 최고점이었던 kg당 20 달러 대비 크게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중국 수산물 무역업자들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운임 감소에 나섰다. 중국 국무원은 2022년 4분기에 정부가 상용트럭의 민자 고속도로 이용료를 10% 지원하고, '정부 지정' 화물항만요금을 20%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경제성장은 상하이를 포함한 중국 주요 도시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타격을 입었다.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주석이 2022년 11월 봉쇄 정책을 완화할 가능성도 있으나, 상하이의 컨설팅 기업 Trivium의 수석 분석가 Xinran Andy Chen은 정치적 이유로 인해 봉쇄 완화는 매우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제로 코로나 정책은 2023년까지 해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물류 분석기업 Container xChange에 따르면, 영국 펠릭스토 항과 리버풀 항의 항만노동자 파업으로 인해 유럽의 공급망이 차질을 겪고 있다. 또한 태풍의 영향과 10월 1~7일 동안 이어지는 중국 연휴로 인해 중국 항만 폐쇄 및 공장·항구 작업 중단이 예고되고 있다.

Container xChange 측은 이로 인해 중국발-유럽행 성수기 화물이 지연될 것이며, 화물선이 유럽과 영국의 다른 항구로 우회해 주요 항구 허브의 혼잡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s, 2022년 9월 27일자

무디스 “해운업 수익성 전망 부정적” 예측

운임 하락으로 수산업계 호재 예상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해운업체들의 수익성이 정점을 지났고, 해당 부문의 전망 등급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했다. 국제 해운업계에 대한 무디스의 전망은 2021년 12월 이후 계속해서 '안정적' 등급을 유지했다.

무디스는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의 운임이 매우 높

았던 2022년 초반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디스는 해운업 수익이 2023년에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10월 4일자



노르웨이 1~9월 수출 1,000억 달러 돌파

2021년 대비 29% 증가...역대 최고치

2022년 1~9월 동안 노르웨이는 해외 시장에 1,090억 크로네(103억 달러, 105억 유로) 규모의 수산물을 수출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29%(약 243억 크로네) 증가한 수치이다.

노르웨이의 2022년 3분기(7~9월) 수출액은 1개 분기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인 390억 크로네(37억 달러, 37억 유로)를 기록했다. 이전 최고 기록은 2021년 4분기 수출액인 361억 크로네(34억 달러, 35억 유로)였다. 9월 수출액은 역대 최고 기록인 151억 크로네(14억 달러, 14억 유로)로 지난해 동월 대비 27% 증가했다.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NSC) CEO Christian Chrøner에 따르면 이러한 수출 기록의 가장 큰 요인은 기록적으로 높은 물가였다.

현살생선 부문에서, 노르웨이의 3분기 신선 대구 수출량은 5,200톤, 수출액은 2억 8,000만 크로네(2,650만 달러, 2,690만 유로)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수출량 27%, 수출액 3% 감소한 수치이

다. 최대 시장은 덴마크, 스웨덴, 독일 순이었다. NSC에 따르면 어획량 감소로 인해 각국 모든 시장으로 가는 대구 수출량이 감소했다.

3분기 냉동대구 수출량은 1만 4,600톤, 수출액은 8억 900만 크로네(7,660만 달러, 7,660만 유로)를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수출량 11%, 수출액 53% 증가했다. 중국, 영국, 폴란드가 최대 시장이었다.

3분기 청어 수출량은 4만 3,000톤, 수출액은 6억 6,600만 크로네(6,300만 달러, 6,390만 유로)로, 각각 15%, 25% 증가했다. 노르웨이의 1~9월 청어 수출액은 25억 크로네(2억 3,660만 달러, 2억 4,000만 유로)로 2012년 이후 최고치이다. 최대 시장은 독일, 폴란드, 리투아니아이다.

노르웨이의 1~9월 고등어 수출량은 21% 감소한 11만 8,000톤을 기록했다. 수출액은 24% 증가한 1억 6,300만 크로네(1,540억 달러, 1,560억 유로)이다. 최대 시장은 중국, 일본, 이집트이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s, 2022년 10월 6일자

노르웨이 연어·송어 대기업 40% 세금 내야할 수도

노르웨이 정부 제안

노르웨이 정부는 2023년 과세연도부터 연어 및 송어 생산 대기업에 40%의 새로운 '자원 임대료' 세금 도입을 제안했다.

Mowi, Leroy Seafood, SalMar와 같은 주요 상장 연어 양식 회사의 주가는 최대 19%까지 급락했다.

연간 생산량이 5,000톤 미만인 양식업자(전체 양식업자의 3분의 2 이상)는 적용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 기사 출처: TheFishSite, 2022년 9월 28일자



EU, 최대 수심 400m까지 트롤 어업 허용

최근 발표한 전면 금지 조치 수정

스페인 농림수산물부 장관 Luis Planas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얼마 전 발표한 대서양 87개 어업 구역(아일랜드,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EEZ)에서의 트롤 어업 금지 조치를 최대 수심 400m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완화시켰다.

EC는 지난 9월 15일 대서양 북동부 EU 수역의 '취약 해양 생태계'로 알려진 심해 1만 6,000km² 상당의 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구역에서 저층 어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치 완화로 인해 스페인 선단은 지금까지 조업했던 41개 구역에서 10월 9일부터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저층 트롤(bottom trawling)은 여전히 대서양에 위치한 프랑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연안의 87개 어업 구역에서 금지되지만, 해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수심 400m까지의 어업은 허용된다.

Planas 장관은 "희소식이나, 스페인 정부는 이 규정에 대해 EU 사법재판소에 계속해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Planas 장관은 10월 6일 "EC가 최신 과학 정보를 고려하지 않았고, 권고안을 부분적으로만 수용했다"며 "이로 인해 EC는 저연승(bottom-set longline) 등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어업 방식에도 금지를 확대 적용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규칙은 트롤 어구(trawling gear), 저층 자망(bottom-set gill nets), 저연승(bottom-set longliners) 등을 사용하는 어업에 적용된다.

스페인 어업 연합인 CEPESCA의 Javier Garat 회장은 저연승 어구의 낚시 바늘이 동전 크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으므로 금지 조치를 납득할 수 없으며, EC가 이 금지 조치를 해제하거나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Planas 장관은 12월에 개최 예정인 유럽 장관회의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어업 부문과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회의에서는 2023년 TAC와 쿼터가 결정될 예정이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10월 7일자

나미비아 민대구 TAC 15만 4,000톤 설정

어기 2022.11.1~2023.9.30

나미비아 정부는 2022/2023 어기 민대구 총허용어획량(TAC)을 15만 4,000톤으로 설정했다.

어기는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이다.

락 랍스터(rock lobster) TAC는 180톤으로 설

정했다.

나미비아에서 어업은 3번째로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GDP의 3%, 수출 수입의 20%를 차지한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9월 23일자



ECA, EU의 더 강경한 IUU 어업 조치 촉구

회원국 간 통제력 차이로 규제 효과 문제

EU의 독립 감사원인 유럽회계감사원(ECA)은 지난 9월 26일 발표한 “EU의 불법 어업 대처 - 통제 체계가 작동 중이나 점점 불균등 및 회원국 간 격차로 인해 악화”라는 제목의 특별 보고서를 통해 EU 회원국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더욱 강경한 견제 및 제재 조치를 촉구했다.

EU의 IUU 어업 규정은 현재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하나는 EU에 반입되는 모든 자연산 어획 수산물 수입품에 어획 증명서 또는 어획 어선의 국적 또는 어획 허가국에 의해 검증된 수입 서류 첨부을 요구하는 ‘어획인증제도’이다.

ECA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어획인증제도가 추적 가능성을 향상시켰으나, 회원국들의 통제력 불균등 적용으로 인해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보고서는 이로 인해 위증(fraud)의 위험이 증가했으며, 특히 구시대적인 종이 문서 기반 보고체

계가 이를 더욱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일부 EU 회원국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불법 어획 수산물의 대부분이 감사를 피하게 된다는 점이 발견되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어획 수산물 수입 시 부과되는 벌금 평균 액수가 키프로스,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의 경우 최소 200 유로(199 달러)이나, 스페인의 경우 최소 7,000 유로(6,900 달러) 이상으로, 위반에 대한 제재가 불균형하다. 심지어 위반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제재 액수보다 큰 경우도 있었다.

ECA 보고서는 EU가 자체 IT 시스템을 사용하여 위증을 탐지하고 회원국의 규제 체계 전반에 걸쳐 의무적 통제를 자동화할 것을 제안했으나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10월 7일자

Aker, 크릴 어획량 23% 증가

올해 어획량 예상치 5.5~6만톤 만족 예상

노르웨이 크릴 업체 에이커 바이오마린(Aker BioMarine)사는 9월 22일까지 올해 크릴 어획량이 5만 100톤으로 지난해 4만 650톤 대비 23% 증가했다고 말했다.

Matt Johansen 대표는 “올해 크릴 생산량 예상치 5만 5,000~6만톤을 충족시키는 수준으로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원선 ‘Antarctic Provider호’는 9월초 남극

을 출발해 유럽으로 향했다. 회사는 올해 11월 하반기에 남극에서 크릴 조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에이커사는 총 20억 크로네(1억 9,450만 달러)에 달하는 2개의 새로운 5년 만기 선순위무담보 녹색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발표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9월 22일자



美 노동부 보고서, 대만·태국 노동 문제 등재 中·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국가 사례 기재

최근 발표된 미국 노동부의 아동 및 강제 노동에 관한 최신 보고서에 대만과 태국의 사례가 중점적으로 기재되었다.

9월 28일 공개된 “아동 및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상품 목록(List of Goods Produced by Child Labor or Forced Labor)” 보고서에서, 대만과 태국의 어업 부문 강제 노동 사례가 지적되었다. 태국은 새우 가공 산업에서도 아동 및 강제 노동 혐의가 언급되었다.

중국 어업 부문의 강제 노동 사례 또한 보고서에서 지적되었다. 이는 주로 중국 대규모 원양선단의 노동 문제로 인한 것이었다.

방글라데시는 새우 부문의 아동 노동 사례와 건어물 산업의 아동 및 강제 노동 사례가 언급되었다. 미얀마와 캄보디아는 어업 및 새우 부문의 강제 노

동 사례가 언급되었다. 베트남 어업 부문의 아동 노동 사례 또한 보고서에 기재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중국의 폴리실리콘 부문 등 생에너지 장비 산업에서의 리스크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 7월 발표된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TIP)에서 대만이 1등급을 유지하고 태국·아일랜드가 2등급으로 격상되었다는 점으로 인해 지정학적 이해가 반영되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대만은 범블비(Bumble Bee) 및 FCF로 인해 그린 피스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다. 대만은 선박 약 1,100척, 세계 2위 규모의 원양 선단을 보유했다.

대만 수산청은 성명을 통해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것은 유감이나, 노동자 보호를 확대하고 보고서에서 제외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10월 3일자

Ocean Brands, 정어리·고등어 제품 출시

미국 시장 공략

캐나다에 본사를 둔 수산물 업체 Ocean Brands는 미국 시장에 새로운 정어리 제품 라인을 출시했다.

제품 라인은 다음과 같다. 지중해 스타일 야생 Brisling 정어리(작은 정어리), 올리브 오일 Brisling 정어리, Korma 카레(요구르트나 크림에 흔히 아몬드를 넣어 만드는 카레) 야생 고등어

필렛, 올리브·고추·허브를 곁들인 고등어 필렛, 향나무(Juniper) 열매·고수를 곁들인 훈제 야생 고등어, 해바라기 오일 달콤한 훈제 야생 고등어, 할라피노 첨가 오일 야생 고등어 필렛, 훈제 및 후추를 뿌린 야생 고등어.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9월 21일자



MSC, 클라이머테리언 증가

전 세계 식단 변경 소비자 중 31%는 환경적 이유

해양관리협의회(MSC)는 전 세계 소비자들이 환경 문제를 고려해 식단을 변경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인증이 있는 어류 제품을 더 많이 선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점점 더 '클라이머테리언(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조언을 따르는 개인)'이 되고 있다.

클라이머테리언의 식단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식품에 초점을 맞춘다. 이 그룹의 사람들은 식품이 어떻게 생산·가공·운송되는지 잘 알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오염에 기여하거나 탄소 발자국을 더하는 제품을 피하려고 한다. 또한, 동물성 제품 섭취를 줄이길 추구하면서 보다 지속가능한 식사 방법으로 비

거니즘(완전 채식), 채식주의(조류·유제품도 섭취), 페스카테리언(수산물도 섭취)을 장려한다.

9월 30일 MSC는 GlobeScan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식단을 변경했다고 답한 전 세계 응답자의 31%가 그 이유로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들었다. 여기에는 보다 지속가능하게 조달되는 식품 섭취(17%), 기후변화 영향 감소(11%), 해양 보호(9%)가 포함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는 40%가 환경적 이유로 식단을 변경했다고 대답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0월 6일자

18개 보험사, 새 IUU 추적 도구 사용 서약

특정 선박 움직임·이력 등 확인 가능

18개 보험사가 불법 조업에 연루된 선박을 추적할 수 있는 'Vessel Viewer'라는 새로운 도구 사용을 서약했다.

최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해양보험사 컨퍼런스에서 출범한 'Vessel Viewer'는 2019년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의 금융서비스 부문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Net Zero Asset Owner Alliance'의 제품이다.

선박 위치정보 공개 플랫폼인 GFW(Global Fishing Watch)와 AIS 신호를 추적하는 노르웨

이 NGO인 Trygg Mat Tracking가 개발한 'Vessel Viewer'는 실시간으로 어선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으며, 선박 소유자, 소속국 내역,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또는 과거 등재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비영리 금융 싱크탱크 Planet Tracker의 Francois Mosnier에 따르면, 이 기술은 또한 보험사들이 특정 선박과 관련된 리스크를 완전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s, 2022년 9월 27일자



日 2022년도 외식시장 규모 약 29조 엔 예측 약 7% 증가...회전초밥 등 서서히 회복

일본 시장조사 기업 야노경제연구소(矢野經濟研究所)에 따르면, 2022년도 일본 국내 외식시장 규모(포장 도시락·반찬 전문점 등 중식 형태 포함) 예측은 지난해 대비 6.9% 증가한 28조 8,940 엔으로 전망되었다. 연구소는 코로나19 사태 3년차를 맞아 가격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 가능한 회전초밥 등 매장 내 식사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하면 4.3%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소는 2022년의 일본 국내 외식시장 동향에 대해, 서양식·일본식 패스트푸드에 포장 및 배달 수요를

끌어들이는 등 “외식 분야 각 기업이 근본적인 재검토를 추진하여, 매출이 감소해도 수익 확보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임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향후 전망에 대해 “포장 전문점이나 무인 식당의 증가 등 포장·배달을 신사업의 기동으로 육성하는 움직임이 한층 더 활발해질 뿐만 아니라,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사업형태 전환 등 외식 산업에서 기업의 합종연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9월 28일자

日 2022년 중식(中食) 시장 규모 12조 엔 전망 지난해 대비 3.4%, 2019년 대비 11.9% 증가

일본 시장조사기업 후지경제(富士經濟)에 따르면, 2022년 일본 국내 중식(中食, 배달·포장·케이터링 등) 시장의 규모는 약 12조 2,000억 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3.4%,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11.9% 성장한 수치이다.

이러한 증가의 원인으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집에서 질 높은 식사를 간편하게 하고 싶은 욕구의 증가 등이 지목되었다. 후지경제는 앞으로도 중식 시장이 성장해 2025년에는 시장 규모가 12조 7,000억 엔(2019년 대비 16.5% 증가)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후지경제는 2020~2021년 급성장한 일본 내식(内食, 가정에서 조리하여 먹는 식사) 시장 규

모가 2022년에는 지난해 대비 1.3% 감소한 58조 7,000억 엔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후지경제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밀 등 곡식류나 신선 어패류 등의 매입 보류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에 비하면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프리미엄 제품이나 중~고가 제품 수요 증가로 인해 향후에도 시장은 확대되어 2025년에는 59조 7,000억 엔(2019년 대비 4.7% 증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후지경제는 예상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10월 6일자



MSC “새 ICES 권고안, 북동대서양 부어류 남획 우려”

고등어, 청어 등 어획량 과학적 권고 수준 초과

2021년 국제해양탐사협의회(ICES)의 최신 어획량 권고안에서 핵심 어종이 남획된 것으로 드러나자, 해양관리협의회(MSC)는 정부 차원의 부어류(pelagic) 자원 긴급 보호 조치를 촉구했다.

지속가능한 어획량에 대한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ICES는 2021년 고등어, 대서양-스칸디나비아 청어, 청대구(blue whiting)의 어획량이 과학적 권고 수준을 각각 27%, 31%, 23% 초과했다고 지난 9월 30일 발표했다. MSC는 “과학적 권고는 자원의 장기적 생존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지속적으로 남획될 경우 해양, 경제, 생태계가 위협받

다.”라고 말했다.

MSC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고등어, 대서양-스칸디나비아 청어, 청대구 어획량은 450만톤을 넘어섰다.

ICES의 2023년 청대구 어획 권고량은 현저히 증가했으나, ICES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체제가 없다면 미래의 자원 건강 수준이 위협에 처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서양-스칸디나비아 청어는 지난 10년간 자원량이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10월 3일자

노르웨이, 북해 고등어 어획 호조

양륙량 추세는 2021년 대비 부족

노르웨이 경매 업체 Norges Sildesalgslag에 따르면, 노르웨이와 북해 선단은 많은 양의 고등어를 발견하고 양륙하기 시작했다.

판매 컨설턴트 Sigurd Vedoy에 따르면 어장에서 9월 14일 보고된 어획량은 매우 좋은 수준으로, “비슷한 어획량을 찾으려면 2015~201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정도”이다.

Vedoy는 날씨 문제가 여전히 걸림돌이지만 어업이 초반 느린 시작 이후 다시 회복되었고, 쿼터를 모두 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르웨이의 2022년 쿼터는 28만 4,539톤으로, 9월 16일까지 이 중 59%가 어획되었다. 2021년

에는 쿼터가 더 많았음에도 같은 시기에 쿼터의 72%가 양륙되었다.

현재까지 노르웨이의 고등어 평균 가격은 kg당 12.98 크로네로, 2021년 평균 가격인 kg당 9.96 크로네 대비 크게 상승했다.

36주차(9월 5~11일)에 총 2만 900톤의 고등어가 경매에 등록되었다(북해 고등어 어획량 집계 이전). 특히 연안 선단의 어획이 성공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안 어획 고등어의 평균 어체 사이즈는 300g 미만이며, 근해 어획 고등어의 평균 사이즈는 415g으로 370~500g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9월 16일자



파란 돛

장 석 남

바다는
어디서부터 가져온 파도를
해변에, 하나의 사소한 소멸로써
부려놓은 것일까
누군가의 내부를 향한
응시를 이 세계의
경계에 부려놓는 것일까

바다는 질문만으로 살아오르고
함성을 감춘 질문인 채 그대로 내려앉는다
우리는 천상 돛을 하나 가져야 하겠기에
쉬지 않고 사랑을 하여
파란 돛을 얻는다





9월 오징어 국내 동향

태풍 및 연휴로 조업일수 줄어 전월 대비 생산량 감소

□ 생산동향(9월 오징어 생산량, 연근해 생산 줄며 전월 대비 10%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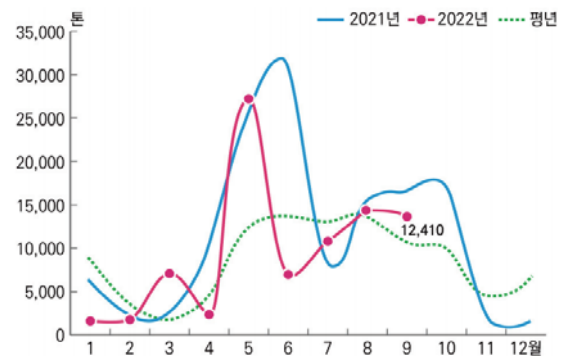
9월 오징어 생산량은 1만 2,410톤으로 전월(13,756톤)보다 9.8% 감소했다. 이는 태풍(힌남노, 난마돌) 및 명절 연휴 등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하절기 수온 상승으로 북상한 오징어의 남하회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해안의 오징어 어군 밀도도 낮았다.

지역별 위판량을 살펴보면, 여수수협에서 1,021톤, 부산공동어시장 907톤 등 남해안 지역에서 2,803톤이 위판되었다.

동해안에서는 구룡포수협 489톤, 울릉군수협 381톤 등 1,959톤이 위판되었으며, 서해안은 서산수협 485톤, 군산수협 104톤 등 704톤의 위판 실적이 있었다.

한편, 예상과 달리 원양산 오징어 반입이 지속되었으며 9월 기준 원양산 오징어 반입량은 6,904톤으로 전월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2022년 9월 기준 오징어 누계 생산량은 1만 2,410톤으로 작년보다는 30.3% 적었으나, 평년과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주 : 2022년 9월은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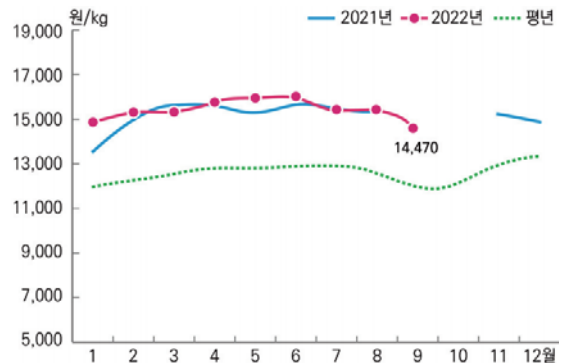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해양수산부, 잠정치는 당 센터 추정 결과

□ 가격동향(9월 냉동오징어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6% 하락한 kg당 14,470원)

9월 오징어(신선냉장) 산지가격은 어획물 크기가 커지며 전월(5,702원) 대비 5.6% 상승한 kg당 6,020원이었다.

산지가격 상승과 함께 오징어(신선냉장) 소비자가격도 전월(13,577원) 대비 12.3% 상승한 kg당 15,250원이었다.

반면, 오징어(냉동)의 도매가격은 kg당 9,325원으로 약 보합세를 보였으며, 소비자 가격은 kg당 14,470원으로 전월(15,437원) 대비 6.3% 하락했다. 이는 추석 전후 정 부비축물량 방출 및 대형 소매점 할인행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 : 2022년 9월은 잠정치임

자료 : aT KAM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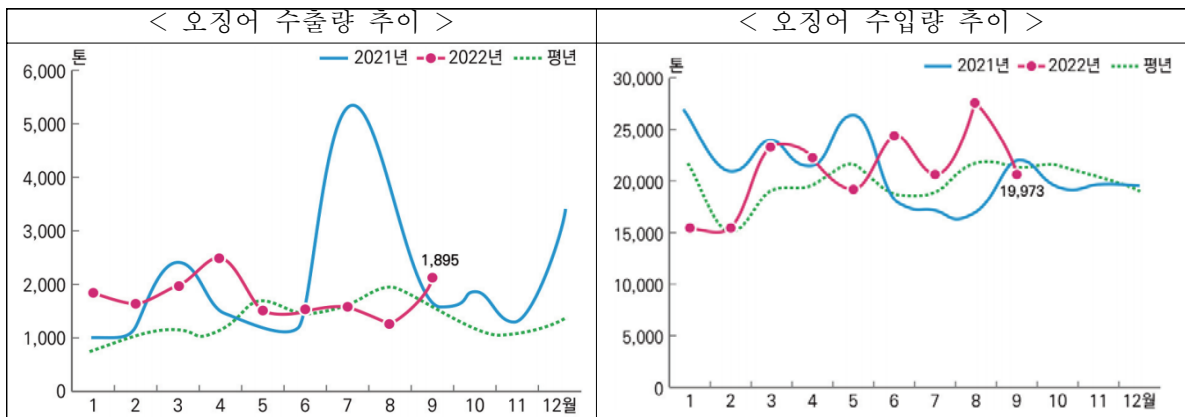


□ 수출입동향(9월 오징어 수입량, 전월 대비 27% 감소한 1만 9,973톤)

9월 오징어 수출량은 1,895톤으로 전월 대비 60.5% 증가했다. 제품 형태별로는 냉동오징어가 1,511톤, 기타 오징어는 384톤이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938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미국 447톤, 일본 361톤 등으로 나타났다.

9월 오징어 수입량은 1만 9,973톤으로, 전월 대비 26.5% 감소했으며,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9.1% 적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산이 8,132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페루산 7,988톤, 칠레산 2,154톤 등의 순이었다.

9월까지 누적 수입량은 18만 6,398톤으로 작년(193,238톤)보다 3.5% 적었고, 평년(177,929톤)보다는 4.8%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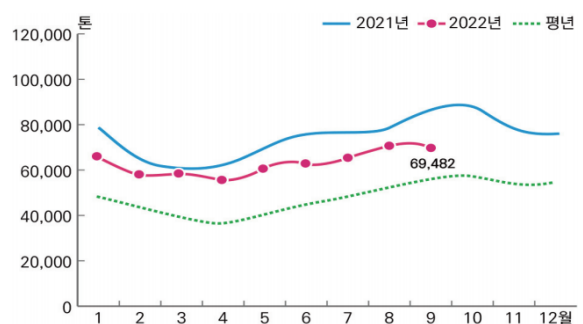


□ 재고동향(9월 말 기준 오징어 재고량, 공급 줄고 명절소비는 늘어 전월 대비 소폭 감소)

9월 말 기준 오징어 재고량은 전월 대비 2.4% 감소한 6만 9,482톤이었다.

이는 연근해 생산 및 수입이 줄었으며 명절 수요로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10월 이후 오징어 남하회유가 시작되면 생산이 늘며 재고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자료 출처: KMI 수산물측 10월호



9월 명태 국내 동향

원양명태 반입량 증가, 소비자가격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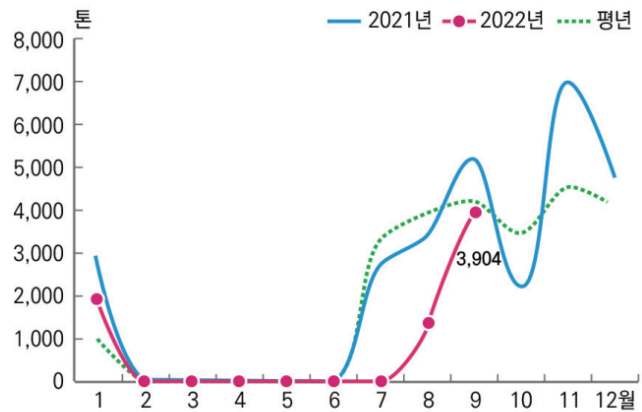
□ 생산동향(9월 명태 반입량, 전월보다 증가한 3,904톤)

9월 원양명태 반입량은 3,904톤으로, 국적선의 명태 조업과 반입이 순조롭게 이뤄지며 전월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작년 및 평년 동기에 비해서는 각각 25.3%, 7.8% 적었다.

2022년 누적 반입량은 7,088톤으로, 작년 및 평년에 비해 각각 50.2%, 43.3% 적었다.

한편, 9월 30일까지 어획된 원양명태는 1만 1,179톤으로 작년(18,065톤)에 비해 38.1% 적었으며, 배정된 쿼터의 39.2%를 소진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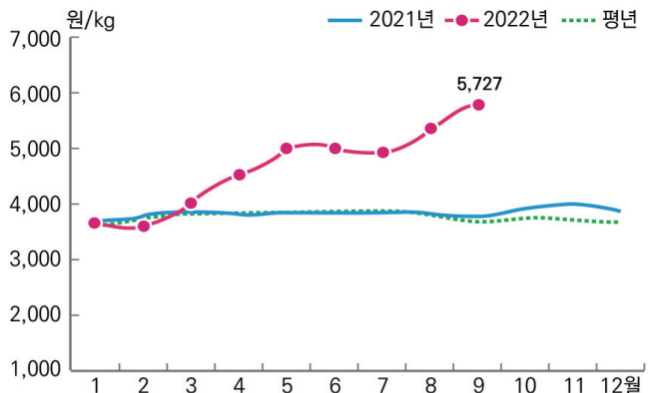
주 : 2022년 9월은 잠정치임

자료 : 해양수산부

□ 가격동향(9월 명태(냉동)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상승한 kg당 5,727원)

명태(냉동) 소비자가격은 전월 대비 4.7% 상승한 kg당 5,727원이었다. 이는 추석 명절 이후 할인행사가 종료되고, 가격이 형성되지 않던 일부 대형소매점에서 평균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9월 명태(냉동) 도매가격은 전월 대비 1.6% 하락한 kg당 2,585원으로, 6월 이후부터 하락세를 보였다.



주 : 2022년 9월은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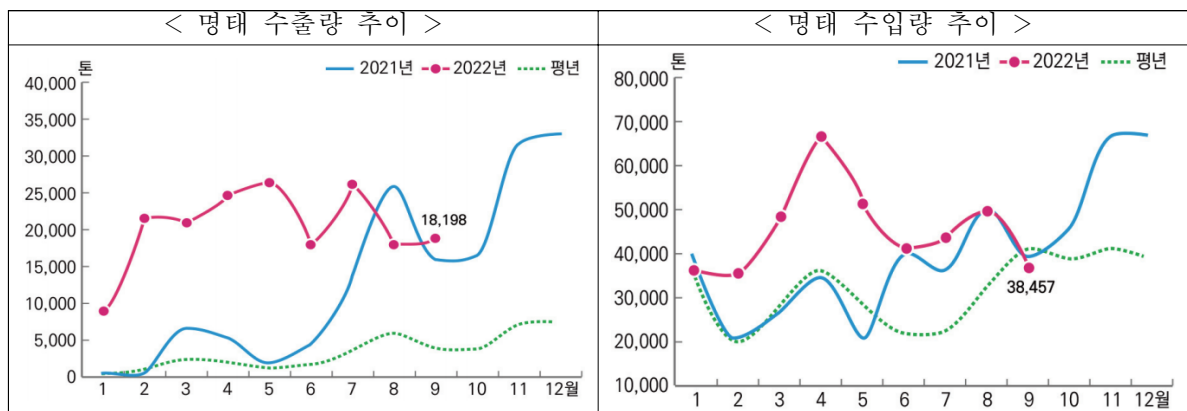
자료 : aT KAMIS



□ 수출입동향(9월 명태 수입량, 3만 8,457톤으로 전월 대비 21% 감소)

9월 명태 수출량은 전월(17,678톤)보다 2.9% 증가한 1만 8,198톤이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으로의 수출량은 전월(15,887톤) 대비 증가한 1만 7,233톤이었으며, 베트남으로 689톤 등이 수출되었다. 작년 동월 대비 14.6%, 평년에 비해서는 4배 이상 많았다.

명태 수입량은 3만 8,457톤으로 전월(48,715톤)보다 21.1% 감소했다. 작년 및 평년에 비해서도 각각 7.6%, 11.0% 적었다.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는 러시아산 냉동명태가 2만 1,465톤, 미국산 냉동연육 8,888톤 순으로 모두 전월보다 감소했다. 러시아산 냉동필렛도 전월(1,0791톤) 대비 크게 감소한 5,097톤이었다. 9월까지 누적 수입량은 41만 25톤으로 작년 및 평년에 비해 각각 32.6%, 46.9%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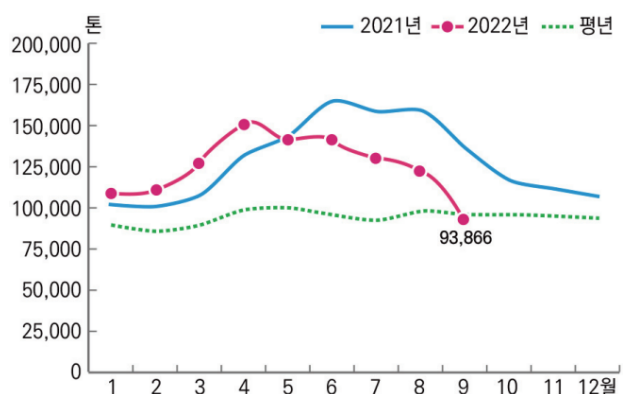


□ 재고동향(9월 재고량, 전월 대비 감소)

9월 말 기준 명태 재고량은 9만 3,866톤으로 전월(120,659톤) 대비 22.2% 감소했다.

반입은 늘었으나, 수입이 줄고 국내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작년 동월에 비해 30.7% 적었으며, 평년 동월과 비슷했다.



* 자료 출처: KMI 수산물측 9월호



물가 안정을 위한 수산물 할인행사 가을에도 계속

10월 3일부터 「대한민국 수산대전 - 가을맞이특별전」 개최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10월 3일(월)부터 10월 19일(수)까지 17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을맞이특별전」을 개최한다. 온라인은 10.3.(월) ~ 10.16.(일), 오프라인은 10.6.(목) ~ 10.19.(수)이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는 행사이다.

가을맞이특별전 할인 대상 품목으로는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조기, 마른멸치, 포장회(광어·우럭), 새우, 꽃게가 선정되었으며 참여 업체별로 최대 5개 자율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지에스(GS) 리테일,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포함한 12개 오

프라인 업체와 에스에스지닷컴,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21개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한다.

1인당 1만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하며, 참여업체의 자체 할인을 추가해 소비자들은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비플제로 제로페이 앱(APP)'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국 729개 시장, 13,339개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온누리 전통시장, 온누리 굿데이, 놀장앱과 같은 온라인몰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1인당 최대 4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상품권은 10.3, 10.10, 10.17 3회에 나눠 발행한다.

해수부, '어업기자재관리과' 신설 어구 보증금·실명제 등 현장 적용 위해

해양플라스틱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전담하는 '어업기자재관리과'가 해양수산부내에 신설된다.

어업기자재관리과는 내년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어구관리정책을 총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어업정책과, 수산자원정책과, 해양보전과 등 각 부서에 분산된 어업기자재 관리 기능들을 통합해 수산정책실 어업정책관의 하부 조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신설되는 어업기자재관리과는 정책적인 부분 뿐 아니라 어구 보증금제, 어구 회수제, 어구 실명제 등이 현장에서 적용될 것인지를 전

업적인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업기자재관리과 신설은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장관 자율기구제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 장관 자율기구제는 기관별 국정과제 및 핵심 현안에 필요한 기구를 장관 재량으로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어업기자재관리과 운영기간은 6개월이며 연장은 1회 가능하다. 정원은 3·4급 부서장을 비롯해 총 7명이다. 해수부는 어업기자재관리과 설치를 위한 훈령을 개정해 오는 10월 1일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서별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회장	윤명길	589-1600	
상무	신현애	589-1602	해외협력본부장
이사	이형균	589-1603	경영지원본부장
비서(주임)	조한솔	589-1601/1621	비서, 출납업무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경영지원본부	강성현 부장	589-1604	총괄
	공길웅 과장	589-1605	총무, 자금
	조성환 과장	589-1606	사무관리, 차량운영
	이형균 이사	589-1607	총괄(겸직)
	김영수 과장	589-1608	기획, 홍보
	김민재 사원	589-1609	원양뉴스, 생산통계
	소기동 부장	589-1610	총괄
	김효상 과장	589-1611	무역제도, 수출통계
	최도환 주임	589-1619	노사, 선원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협력본부	신현애 상무	589-1612	총괄(겸직)
	최봉준 과장	589-1613	국제협력
	백상진 주임	589-1614	참치선망
	-	589-1615	참치연승
	진호정 부장	589-1616	총괄
	조성주 과장	589-1617	북양, 품치
부산지부	최상진 사원	589-1618	오징어, 기타트롤
	이성재 이사	(051) 253-3388	총괄
	김현애 과장	(051) 253-3388	확인업무(수출,반입등)
	공인계량소	(051) 253-3391	차량계량

해외수산협력센터(세종)	센터장실	이상목 센터장	044-868-7360	협력센터 총괄	국제협상지원팀	원태훈 전문관	044-868-7831	일반/지역수산기구
	기획운영팀	이희진 팀장	044-868-7834	행정총괄, 명예수산물관	해외진출지원팀	김수민 전문관	044-868-7363	일반/지역수산기구
	국제협상지원팀	류진호 행정관	044-868-7837	OFIS, 해외수산투자, 행정		-	044-868-7836	ODA
		양재걸 전문관	044-868-7364	일반/지역수산기구		윤유정 행정관	044-868-7838	통계, 협의회

■ 협회 홈페이지 : www.kosfa.org ■ 팩스번호(서울) : 02-589-1630/1, (부산지부) : 051-253-3392, (해외수산협력센터) : 044-868-7840

명예해양수산물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사모아	오시영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피지	김종태	679-330-7188 ckpfj@naver.com
인도네시아	이재원	62-0343-4742525 imsindo@hanmail.net
가나	이윤홍	233-303-200995 skshipafrica@yahoo.com
세네갈	김점봉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64-3-344-1617 seajho@extra.co.nz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675-321-8137 jc651016@gmail.com
아르헨티나	이상우	54-223-495-0712 kargeexport@gmail.com

해외협력자문위원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남아공	조창원	27-21-447-1634/1515 saka0505@naver.com
수리남	박권현	597-42-2185 donghee_sur@yahoo.co.kr

원양산업
제1150호

발행처
법인

특수
한

한국원양산업협회

발행 : 2022년 10월 15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 서울라-9183호 / 간별 : 월간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양재동, 삼호물산B/D A동 6층)

발행인
윤명길

편집인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현명한 주부는 원양산 생선을 좋아해~

【원양산과 수입산 구별 요령】 원양산은 원산지 표시를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표시하므로 '원양산' 표기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사례 : 원양산 또는 원양산(대서양)>

통조림용 참치조림 장면

원양생선은 우리나라 어선이 잡는 즉시 선상에서 위생적으로 냉동처리하기 때문에 수입수산물과는 달리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적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참 치 회

DHA, EPA, 셀레늄이 풍부



참치통조림

심장병 등 성인병 예방



오징어

피로회복 성분,
타우린 다량 함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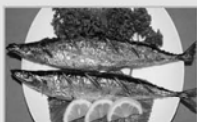
명 태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



조기류(민어과)

제수용 생선으로 제격



공 치

불포화지방산 다량 함유

원양산 생선을 수입산과 동격 취급 마세요!



◎ 원양산 생선이 수입산보다 왜 좋을까?

01

내국물품 (우리 어선이 잡은 생선)

원양산은 우리나라 어선이 외국 원양 수역이나 해외 공해상에서 잡아 직접 국내로 들어오는 생선이기 때문에 연근해산과 마찬가지로 내국 물품에 해당한다. 반면 수입산은 외국물품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02

오염우려 없는 친환경 생선

원양산은 대부분 청정해역이나 오염이 되지 않은 대양에서 안전한 위생 기준(HACCP)에 의해 생산되어 식품안전성이 수입산과 달리 뛰어납니다.



03

선상급랭 시설을 통한 우수한 신선도 관리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은 선상급랭 시설이 매우 우수해 어획 즉시 선상에서 곧바로 급랭하여 국내로 반입되기 때문에 수입산에 비해 신선도가 훨씬 뛰어납니다.

